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9. 3. 26.(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이광표
한태식(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급행철도 및 역사 설치)	3
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현상변경(공원조성)	6
3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안 검토	10
4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전망대 신축)	12
5	등록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현상변경	13
6	「만해 한용운 심우장」 문화재(사적) 지정	14
7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 문화재 등록	30

【검토사항】

8	「고성 감시초소(GP)」 문화재 등록 검토	41
9	「부산 구 동래역사」 문화재 등록 검토	52
10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문화재 등록 검토	61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문화재 등록 검토	73

【보고사항】

12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무대행사)	87
13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현상변경(경찰홍보 조형물 설치)	89

심 의 사 항

1.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급행철도 및 역사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민간투자사업)'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민간투자사업)'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 목 적 :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 내 용 : 40m이상 대심도에 고속 광역교통시설 도입하여 대중교통체계 구축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강남구 일원
 - 아래 문화재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통과 함
 - 서울 송례문(국보 1), 서울 한양도성(사적 10), 고양 서오릉(사적 198), **구 서울역사(사적 284)**
- 연 장 : 45.075km(차량기지 입출고선 2.44km포함)
- 정거장 : 5개소(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진하게: 근대분과 검토범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청파로 426 (봉래동2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봉래동 일원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2구역(문화재에서 터널굴착위치까지 이격거리 68m)
 - 현상변경허용기준 : (1구역) 심의구역, (2구역) 관련법규 준용

- 신청내용 : 지하 철도노선 통행 터널 굴착, GTX-A 서울역 정거장 신설
 - 터널 굴착
 - 지표면으로부터 56m아래에 남북방향으로 굴착(TBM* 굴착공법)
 - *TBM(Tunnel Boring Machine): 다수의 디스크 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여 굴진하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
 - 규모: 터널 높이 20.1m, 폭 30.7m
 - GTX-A 서울역 정거장 신설
 - 제어발파공법, 지하철 1호선 정거장 동측면에 인접 설치(환승 연계)
 - 개착정거장(지하 1층), 터널정거장(지하 2층), 환기구* 3개소
 - *공사범위 중 문화재와 가장 인접: 19번 환기구 및 연결통로 (22m이격)
 - 외부출입구 : 엘리베이터 1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 피난계단 : 1개소

라. 서면검토 의견 (2019. 1. 7.) : 문화재위원 000

- GTX 철도가 지하 56m에 통과하고 지상에는 승강기, 피난계단, 환기 구 등 필수시설이 최소 규모로 설치되므로, 서울역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지하 구조물로 인한 진동, 지하수위 변화 등이 서울역의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GTX 철도로 인해 서울역에 미치는 문화재 측면의 영향은 GTX 철도의 도심통과 노선 주위에 분포하는 여러 문화재(승례문, 경복궁, 덕수궁, 고종 어극 40주년 청경기념비 등)와 함께 종합적,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마. 현지조사 의견 (2019. 1. 22.) : 문화재전문위원 000 등 4명

- 문화재전문위원 000
 - 시공 중 가장 가까운 곳의 공법에 대해 구 서울역사의 영향을 재검토할 것
 - 시공 중 지하수위가 낮아지므로 최하위 수위 등(지하수 변동) 검토할 것
 - 시공 중 서울역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설계 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 000(한국구조안전기술원 원장 / 진동분야)
 - 이격거리 등을 감안할 때 본선구간 굴착에 따른 진동은 크게 문제 시 되지 않는 상황으로 사료 됨
 - 오히려 인근 환기구 발파구간의 진동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바, 시험 발파를 통한 진동 추정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른 재검토가 바람직함
 - 본 건의 경우 지하수위 부분이 더욱 문제시 될 수 있는 바, 문화재 건물의 기초가 위치한 레벨의 토층에 대한 파악 및 그에 따른 해석 등을 통한 사전대응조치의 수립이 필요하리라 판단 됨

○ **OOO((주) STeng 대표 / 지하철, 터널, 교량분야)**

- 구 서울역사의 안정성은 GTX 서울역정거장 대단면터널 중심에서 이격거리 88.39m, 심도 56m로 지하안정성평가에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으나, 개착대합실(이격거리 40m, 심도 20m) 대단면 버팀대 큰수평력에 따른 지반이완 등으로 공사 중 상시계측안전관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선환기구(19번, 32km841.60)는 문화재와 이격거리 20~30m(횡갱)로 (공사범위 중 가장 근접) 개착공사 시 차수공법과 지하수위 변화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실시설계도(상세도, 가시설공법 등) 검토 결과, 구 서울역사에 근접한 개착대합실, 수직구, 본선환기구 등에 대한 구조적안전성 확보 필요
 - ① 대심도 개착대합실과 터널굴착 병행공법의 정거장과 주출입수직구, 본선환기구는 각각 G.L -20m 내외에서 개착구간이 형성되는데 일부(방향)구간만 차수그라우팅을 적용하였으나, 모든 방향에 적용 필요
 - ② 주출입수직구(E/S 공간), 본선환기구와 접속되는 터널 및 터널 정거장의 이음부에 수직력(사하중)에 대한 보강 거더를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③ ①, ② 항이 대단면터널의 가상활동파괴면 내외에 존치 여부 확인 후 안정성 검토 필요
- 본선환기구(19번)과 구 서울역사를 포함한 FEM해석 필요(횡갱(橫坑)부분)
- 구 서울역사 주변 우수·오수 관거 등에 대한 GPR 탐사 및 지하안전 영향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시 된 환기구 시공 방법(CIP+링빔=H+토류판+버팀보)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 **OOO(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반분야)**

- 대상물건과 신규 및 기존 지하구조물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그림과,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본(공사대상 아닌) 변형, 진동의 영향결과 등을 심의자료에 표현 필요
- 구 서울역사에 가장 근접한 구조물인 신 서울역정거장과 19번 환기구를 잇는 NATM 굴착 횡갱(橫坑)과 환기구 개착시공이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으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 구 서울역사 주변 공사, 즉 KTX와 지하철 공사 시 관련 기록을 찾아 설계에 참고 할 필요가 있음

바. 참고사항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관련 다른 분과 현상변경 허가 진행상황**
 - 사적분과위원회(2019.2.13.) : 조건부 가결(공사 시 진동 모니터링 실시 후 보고)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2019.3.21.) : 원안 가결

사. 의결사항

- 보류
 - 환풍구 등 시설물에 대한 제반자료를 보완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입체적 판단 근거 마련
 - 현장조사 의견 확인 필요
- 출석 9명 / 보류 9명

2.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현상변경(공원조성)

가. 제안사항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용흥궁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계획하는 '용흥궁 공원 조성'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안건의 위원회 검토 이력

심의일자	심의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29.(화)	보류	현지조사 후 재검토
2.26.(화)	보류	문화재 경관을 고려한 무대 지붕 재검토,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의사결정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화군청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424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길 22(관창리)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창리 405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이격 거리 0m)
 - 현상변경허용기준 : (1구역) 개별심의
 - 신청내용 : 용흥궁 공원 조성 및 강화성당 주변 정비
[문화재 보호구역]
 - 서측 경사면 조경(조팝나무 125㎡) 식재
 - 야외 화장실 주변 신규 계단 설치(길이 2.75m, 높이1.75m, 화강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 변경내용 : (현황) 주차장(약 67대), 광장 등
(변경) 주차장(약 24대) 등 공원(8,474㎡) 조성
※ 추가주차장(103대) 인근 부지에 별도 조성예정(보존지역 3구역)
 - 3구역 허용기준 : 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 바닥포장 : 점토블럭 2,500㎡, 잔디보호매트 3,000㎡ 등
- 시설설치 : 야외무대 단상 9×4.5×0.6m(1), 바닥분수 6×6m(1)
- 조 경 : 소나무 20주, 관목 4,000주, 지피 26,500본 등
- 배수시설 : 맹암거 370m, 연결관 250m, 원형수로관 180m, 집수정 20개
- 조명설치 : 보안등 37개 설치 (LED, 색온도 6,000k, 높이 4.2m)
- 부대공사 : 전기·통신 공사 등

라.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관할 사제(신부)제출 의견 요지 (2019. 3. 12.)

- 강화성당은 초기 성공회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물이자 동·서양과의 만남,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귀중한 문화유산임
- 공원 조성 사업을 계기로 강화도를 찾는 이들이 종교 이야기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성당을 찾는 이들 중 노약자와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고민을 도와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용흥궁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 성공회 강화읍성당 관할사제 윤병학 신부입니다. 용흥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 우리 성당의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읍성당은 초기 성공회 영성인 켈틱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물이자 동서양과의 만남,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건물이 간직하고 있는 영성, 건물이 말하는 목소리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회 초기 영성에서는 초월적 하느님보다는 내재적 하느님, 곧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느님이 강조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롬1:20)라는 말씀과 같이 성공회 영성에서는 창조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강화읍성당이 갖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연설(사도 17:22-30)에서 그들의 강한 신앙심을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는 것을 보고,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 온 그분이 곧 하느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설교를 온 몸으로 강화읍성당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기 전, 한 처음부터 하느님은 여기 계셨고, 이 땅과 역사와 문화와 모든 종교 안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하느님, 나라의 흥망 성쇠, 인간의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 각 사람들 안에 내재하시는 하느님을 강화읍성당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생각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배척하는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고 모든 문화와 종교, 사람이 하나이고, 거기에도 계시는 하느님을 보고, 서로 어우러져 살라는 큰 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연결하고 조화와 어우러짐을 강조하는 성공회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강화읍성당입니다. 타종교와 문화를 결코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말하고 있으며,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화읍 성당은 단순한 기념사적이 아니라, 영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건물이 간직하고 있는 성공회의 정체성, 영성은 이

성당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회 예배가 드러질 때에만 그 가치가 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 지금도 숨 쉬는 성당, 독선과 이기적인 아집과 편견을 벗어 버리고, 각 사람과 문화 종교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라는 큰 목소리는 여전히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고아선교, 문맹퇴치를 위하여 신명학교와 인쇄술, 의료선교를 통하여 초기 강화도 선교를 주도해 온 성공회는 이런 영성을 바탕으로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는 강화도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건물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영성, 하느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한옥 체험 및 영성체험의 장으로 강화읍성당이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건물이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 겨울에도 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공동체 놀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살아 숨 쉬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강화도, 함께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강화도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도에 있는 역사 문화 유적지가 죽은 문화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곳, 종교이야기 거리를 심도 있게 검증하여 고아, 의료, 문화, 문맹퇴치에 일익을 감당했던 곳, 강화 순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의 이야기가 나뉘지는 곳, 그리하여 걸으면서 역사문화유적지를 통해 옛 이야기가 오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흥궁 공원 조성 사업에 종교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당을 찾는 이들 중에 노약자와 장애를 갖고 이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고민도 도와주시고, 주변에 다양한 종교가 선교초기에 강화도민들에게 미친 선한 영향들이 재조명되고, 복원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와 같이 용흥궁 공원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9. 3. 12일

대한 성공회 강화읍 성당 관할사제 윤병학(마가)신부



문화재청장 귀하

3.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마련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에 따라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군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지정일: 2018.8.6.)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해망동)
- (3) 신청내용: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제1구역	개별 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 20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태양광 설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 없음

- 공고기간: 2019. 1. 31. ~ 2. 19.(20일간)

마. 지자체 의견(군산시)

-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 된 서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사적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으로, 주변의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당초 전라북도 기념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바. 현지조사 의견 (2019. 3. 19.) : 문화재위원 000, 000

- 제시한 기준안은 문화재 주변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것으로 판단 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4.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 현상변경(전망대 신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에서 추진하려는 '월명산 전망대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신청 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주변에서 계획하는 '월명산 전망대 신축'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군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해망동)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전북 군산시 금동 9-4번지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4m 이격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 신청내용 : 월명산 전망대 신축
 - 현황: 군산 개항 60주년 기념 전망대
1959. 5. 1. 건립, 지상 2층(최고높이 6.5m),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계획(현 건물 철거 후 신축)
 - 건축규모: 지상 3층 (최고높이: 69m)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철골조
 - 마감재료: 강판, 로이복층유리, 강화유리, 화강석 등
 - 연 면 적: 923.35㎡ (건축면적: 849.62㎡)
 - 공간구성: 북카페, 관리실, 다목적실 등(1층), 카페(2층), 전망대(3층)

라. 현지조사 의견 (2019. 3. 19.) : 문화재위원 000, 000

- 주변 지형, 건물을 포함한 단면도 작성이 필요 함
- 기존 전망대의 등록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함
- 해망굴의 구조적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 입지, 형태, 규모, 디자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해망굴 구조적 안전 저해
 - 기존 전망대 보존 검토
- 출석 9명 / 부결 9명

5. 등록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계획하는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등록문화재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에 계획하는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내용 중 외관을 1/4 이상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군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등록문화재 제600호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 소재지: 전북 군산시 구영2길 43(영화동)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전북 군산시 구영2길 43(영화동)
 - 신청내용: 외관 원형복원, 외관 증축(엘리베이터실 및 피난계단실)

분류	현황	계획	비고
용도	사무소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용도변경
대지면적	929.1㎡	2,609.3㎡ 929.1(문화재)+405.3(동사무소)+1,274.9(차량등록소)	3필지 합필 (주차장법)
건축면적	712.7㎡	1,284.42㎡ 754.16(문화재)+236.81(동사무소)+293.45(차량등록소)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연면적	1237.48㎡	2,859.55㎡ 1,332.5(문화재)+443.08(동사무소)+1,083.97(차량등록소)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건폐율	76.71%	49.22% (법정기준 충족)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130.08%	97.56% (법정기준 충족) 1,303.58(문화재)+443.08(동사무소)+798.91(차량등록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E.V 및 계단실: 철골조	E.V.실 및 계단실 증축 (건축법)
외관계획 (허가검토 대상)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화강석 정두리벽, 외장타일, 창호 E.V 및 계단실	원형복원 증축
내부계획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	응접실, 대회의실 복원 편의시설(화장실) 설치	내부 일부 원형복원

라. 현지조사 의견 (2019. 3. 19.) : 문화재위원 000, 000

- 설계, 시공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
- 1~2층 계단실 노출된 조적벽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엘리베이터, 외부타일 설치 등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공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6. 「만해 한용운 심우장」 문화재(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8.1.29.)를 거쳐 지정 예고한 「만해 한용운 심우장」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북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제7호(1984. 7. 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 소유자 :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연 혁 : 1933년
 - 수량 및 면적 : 1동 / 88.6㎡ (보호구역 386.4㎡)
 - 구조 : 목구조
- (4) 등록예고 : 2019. 2. 14. ~ 2019. 3. 15.(30일간) *의견없음
- (5) 심의사항 : 문화재 지정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000, 000, 000(2018.12.14.)

- 심우장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1879~1944)선생이 1933년에 건립하여 거주한 가옥이며,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록이 충실히 고증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
- 또한, 집의 좌향을 총독부 청사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은 것과 내부공간의 구성 등은 전통적인 주거방식과 차별되는 특징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사용하던 주공간으로 진정성있게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8.12.14.(금)	대상 문화재	만해 한용운 심우장	
조사자	성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OOO	근대건축	성균관대학교	교수
	OOO	근대건축	충청대학교	교수
	OOO	근대건축사	경기대학교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만해 한용운 심우장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제한)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2월 14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문화재위원 OOO 문화재위원 OOO 문화재위원 OOO</p> <p style="text-align: right;">문화재청장 귀하</p>				

<별첨>

심우장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8. 12. 14(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000, 000, 000

1. 문화재 종류

- 사적
 - 만해 한용운 심우장(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1984.7.5. 지정)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현재 문화재 명칭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심우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에 위치한 주택으로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정마을에 위치해 있다.
- 북정마을은 조선시대에 메주를 쑨던 마을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성곽마을에 대한 일제조사과정에서 북정마을의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서울시가 빈곤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사회공헌사업 '따뜻한 북정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1976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네스코총회에서 역사유적지 보호와 현대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7년 워싱턴 ICOMOS총회에서는 역사마을 및 역사도시지역의 보존에 관한 현장이 공포되었으며, 1999년 멕시코 ICOMOS총회에서는 토속건조유산에 관한 현장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도시유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시 장애물로 여겨졌던 한양도성 안팎의 허름한 주거지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고, 현재 북정마을 일원은 기존의 재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재생차원에서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심우장은 한양도성 밖에 인접한 북정마을 안에서도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역사유산으로 북정마을 북측에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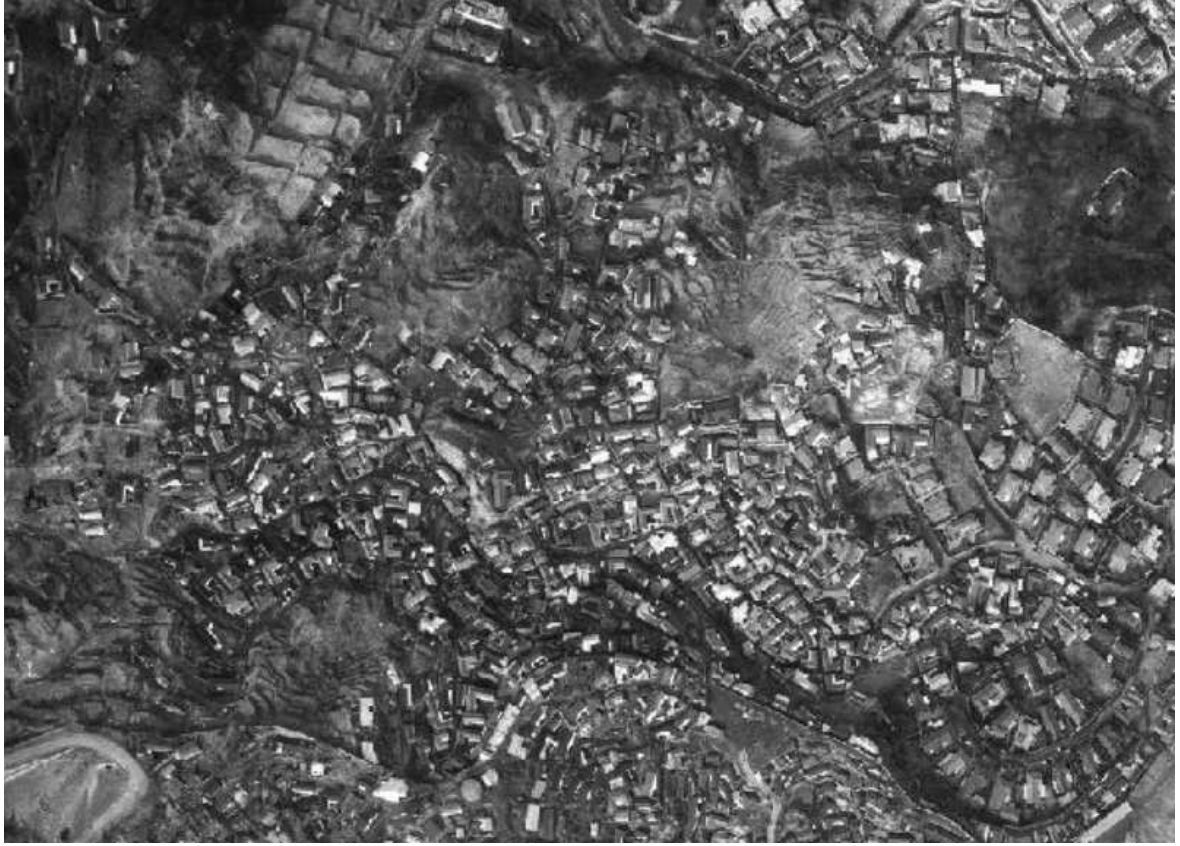


그림5) 1972년 서울시 항공사진



그림6) 2018년 서울시항공사진

4. 연혁 유래 및 특징

- 1879.8.29. 출생의 만해 한용운은 1910년 당시 모순과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불교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개혁방안을 제시한 지침서인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을 백담사에서 탈고하였고, 이를 1913년에 발간함으로써 불교계에 일대 혁신운동을 일으켰다.
- 1914년 4월에는 방대한 고려대장경을 독과하고, <불교대전>을 간행하였으며, 1918년에는 본격적인 불교잡지인 <유심(惟心)>을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선생이 추구하던 불교의 대중화뿐 아니라 암울했던 식민지 무단통치 아래서 민족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 1919년 선생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운동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불교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위해 범어사까지 다녀오는 등 동분서주하였고, 해인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와 있던 백용성 선사를 민족대표로 서명하게 하였다. 선생은 불교계 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도 맡았다.
-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로부터 3천여 매의 독립선언서를 받아, 북교학교인 중앙학림 학생인 정병현, 오택언, 전규현, 신상환 등에게 전달하여, 3월 1일 오후 2시 이후에 시내 일원에 배포토록하였다.
-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종로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이종일이 가져온 선언서를 둘러보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하였다. 이때 선생은 “오늘 우리가 집합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자못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대표로서 이와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니 금후 공동협심하여 조선독립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만세삼창을 선창하였다.
- 선생은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 이후 피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 둘째, 사식을 취하지 말 것.
 -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
- 선생은 1921년 12월 21일 석방된 뒤에서 민족운동을 지속하면서, 19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고, 1923년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상무운동으로 활동하였다.

- 1924년에는 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총독부에 정교의 분립을 주장하면서, 사찰령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중앙의 불교 행정기관을 각성시켜 불합리한 법규를 정정케하고, 대중 불교의 전통을 되살리는데 전력기울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1927년 5월에는 좌우합작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의 창설이 추진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창립후에는 경성지회장으로 활동했다.
- 1930년 5월에는 김법린, 최범술, 김상호 등 20여명의 청년불교도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운동단체인 만당(卍黨)의 당수로 취임하기도 했다.
- 1931년에는 잡지 <불교>를 인수하여 속간하면서, 불교 대중화와 민중계몽을 위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을 구상, 당시 운영난에 빠져 있던 ‘불교’를 인수하였다.
- 1933년 55세가 되던 해 벽산스님이 기증한 지금의 성북동 터에 심우장이라는 택호의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 집 터는 만해 선생을 따르던 안국동 선학원의 벽산 김적음 스님께서 초당을 지으려고 송림 속에 사둔 대지 52평을 만해선생에게 내어드린 것이 발전하여 짓게되었다고 한다. 후에 후학 동지들이 협찬하여 현재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 터에 집의 향을 정할 때 총독부 청사를 바라보는 향이 싫다고 하여 동북방향으로 집의 향을 틀었다고 알려져 있다.
-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던 일송 김동삼이 1937년 3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을 때 유해를 심우장으로 모셔와 5일장을 치르기도 했다.
- 1944년 6월 29일 조국 광복을 앞두고 입적하였으며, 망우리 묘지에 안장되었다.
-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심우장이라는 택호는 선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가지 수행 단계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심우장 서재에는 일차 유치웅의 서체로 쓴 현판이 남아있다.
- 1952년 12월 박봉근에게 심우장이 매각되었다.
매각 당시 기록에 따르면, 당시 건물이 2동이었고, 현 심우장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 외에 5평 규모의 1개동이 있었으며, 이 모습은 1962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도 확인된다.

- 1962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2동의 건물이 존재했음이 확인되는데 1973년 5월 31일 ‘문단반세기’연재에 실린 사진에서는 본재 아래에 위치한 별동이 철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974년 경향신문에서는 사랑채 앞에 뒷마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 1983년 2월 28일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에서 현 관리사무소 위치에 관리사가 지어졌음이 확인된다. 이 관리사는 만해사상연구회에서 관리하며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1984년에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문화재 지정 당시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기단부와 현재와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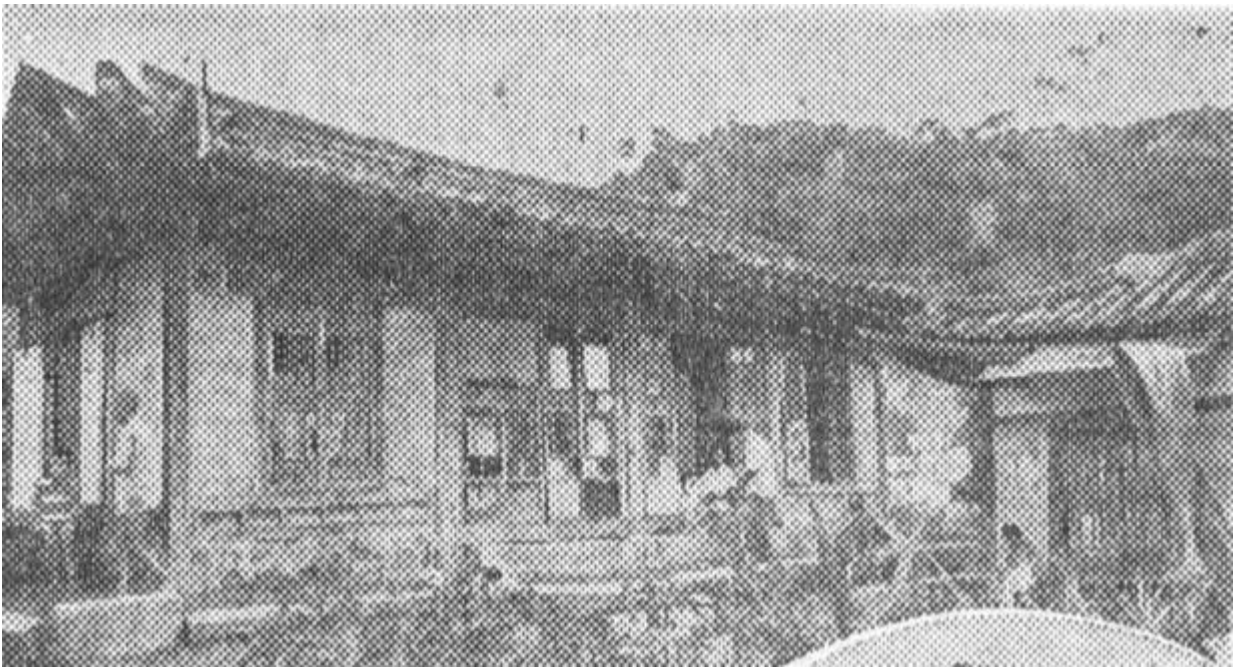


그림7) 동아일보, 1962년 7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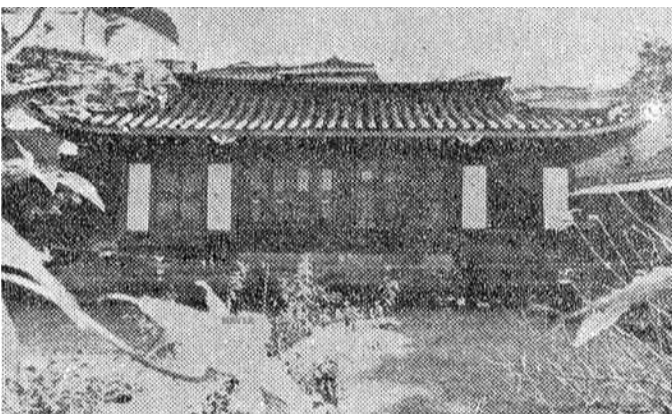


그림8) 동아일보, 1973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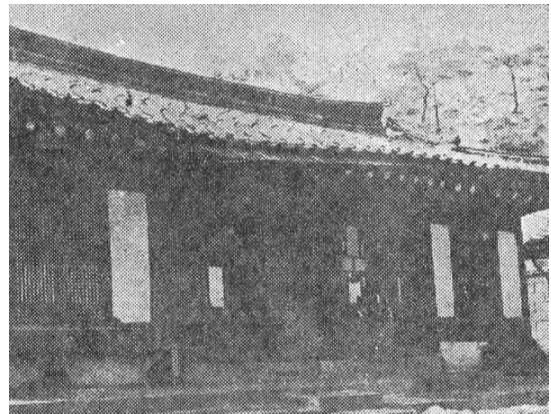


그림9) 경향신문, 1974년 6월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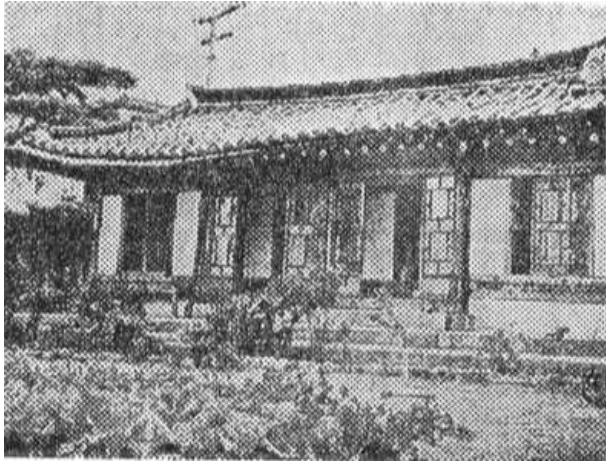


그림10) 동아일보, 1981년 10월 6일



그림11) 경향신문, 1983년 2월 28일



그림12) 경향신문, 1984년 7월 9일



그림13) 심우장, 2018.12.14

- 중앙의 대청방으로 중심으로 사랑채와 부엌_찬방이 위치한 공간구성은 근대기 도시한옥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공간구성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일반적인 도시한옥이나 전통 주거건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해선생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은 맞지만, 그 의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심우장은 만해선생이 1933년에 짓고 11년간 거주하시면서 광복운동의 선구자 일송 김동삼 선생의 오일장을 치르는 등 민족지사들과 교류를 이어간 겨레의 공간으로 가치가 높다.
- 심우장은 전통 한옥과 달리 1930년대 도시적 삶과 전통한옥의 비근대성을 극복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의지가 담긴 근대기 도시한옥이다.
- 1949년 2월 24일 연합신문에 따르면, 만해선생이 손수 목공과 토역을 하셨다고 한다.
- 현존하는 본채는 경전을 읽거나 글을 쓰고, 선정에 드는 공간과 지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 경사진 땅의 남측 사면이 절토되고 북측에 석축을 만들어 대지로 조성되었다.
- 1962년의 심우장 사진에서 사라진 건물의 모습이 확인된다. 5평의 별동으로된 건물은 기와지붕이 없혀 있어, 목구조 건물로 추정된다. 현 관리동 신축이 지층이 교란되지 않았다면, 별동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1962년 사진과 현 모습을 비교하면 세부적으로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 1962년 사진에서는 사랑채 앞과 측면에 툇마루가 보이지 않는데, 현 심우장에서는 툇마루가 전면과 측면은 물론 후면까지 설치되어 있다.
 - 툇마루와 관련해서 1962년이후 1973년, 1974년, 1981년, 1983년 신문지상에 소개된 사진에서 변화가 확인되는데, 사랑채 앞과 측면의 툇마루는 원형이 아닌 것이 확실해 보이며, 1983년 사진에서도 측면 툇마루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정면 2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이 설치된 분합문의 창호 디자인도 현재와 다른 모습임이 확인된다.
 - 기단부는 비슷한 모습으로 확인되나 현 건물에서 기단부 아래에 설치된 석재는 1962년 당시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기단은 1984년 문화재 지정당시의 모습과도 다르다.

- 1949년 연합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에는 싸릿대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최초의 2개동중 1개동이 철거되고, 본체의 일부가 원 모습과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만해선생이 사용하던 주공간은 진정성 있게 보존되어 있다.
- 1933년 신축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은 없으나, 1949년의 신문기사와 1962년의 사진을 비롯하여 문화재지정 당시까지 남아있는 사진, 그리고 1972년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최대한 원형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만해 한용운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족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명징하게 규명되어 있고, 만해선생이 짓고 거주했던 심우장의 건축연혁에서 만해선생이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관련 활동과 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기록이 충실이 고증되어 있으며, 본체의 원 모습이 잘 남아있다. 한편, 심우장 본체의 공간구성은 근대 도시한옥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고 있어 근대기 한옥으로서의 연구가치가 높다. 특히, 만해 선생의 의지가 반영된 공간구성이라는 점에서 근대 주거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선생이 짓고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지사 및 문인들과 교류한 현장이자, 만해의 삶을 담고 있는 독특한 도시한옥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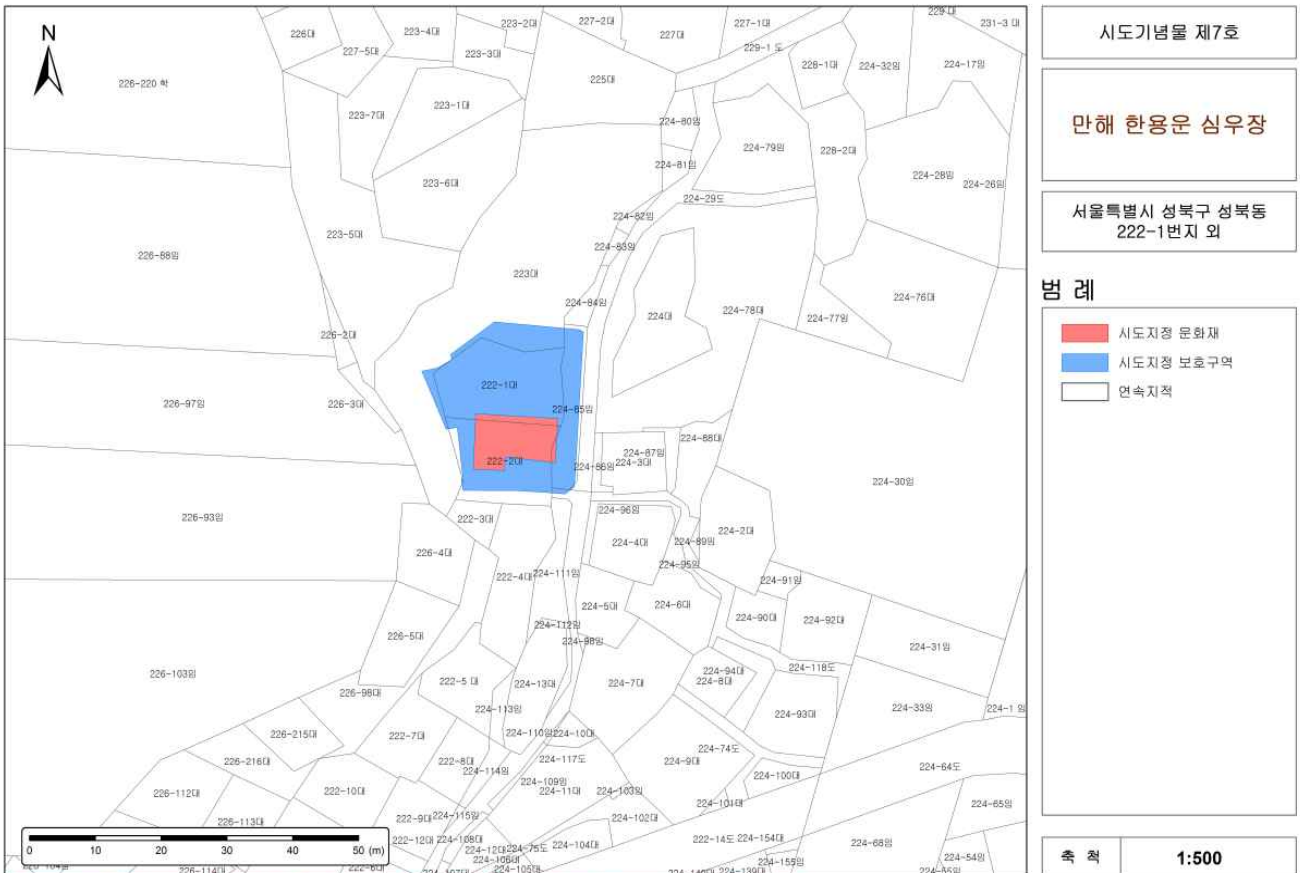


그림14) 연합뉴스, 1949.2.24



그림15) 심우장 정면, 2018.12.14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지정)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량						
만해 한용운 심우장	1933	근대한옥 목구조	386.4㎡	전시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성북구 청장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 청장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8.6㎡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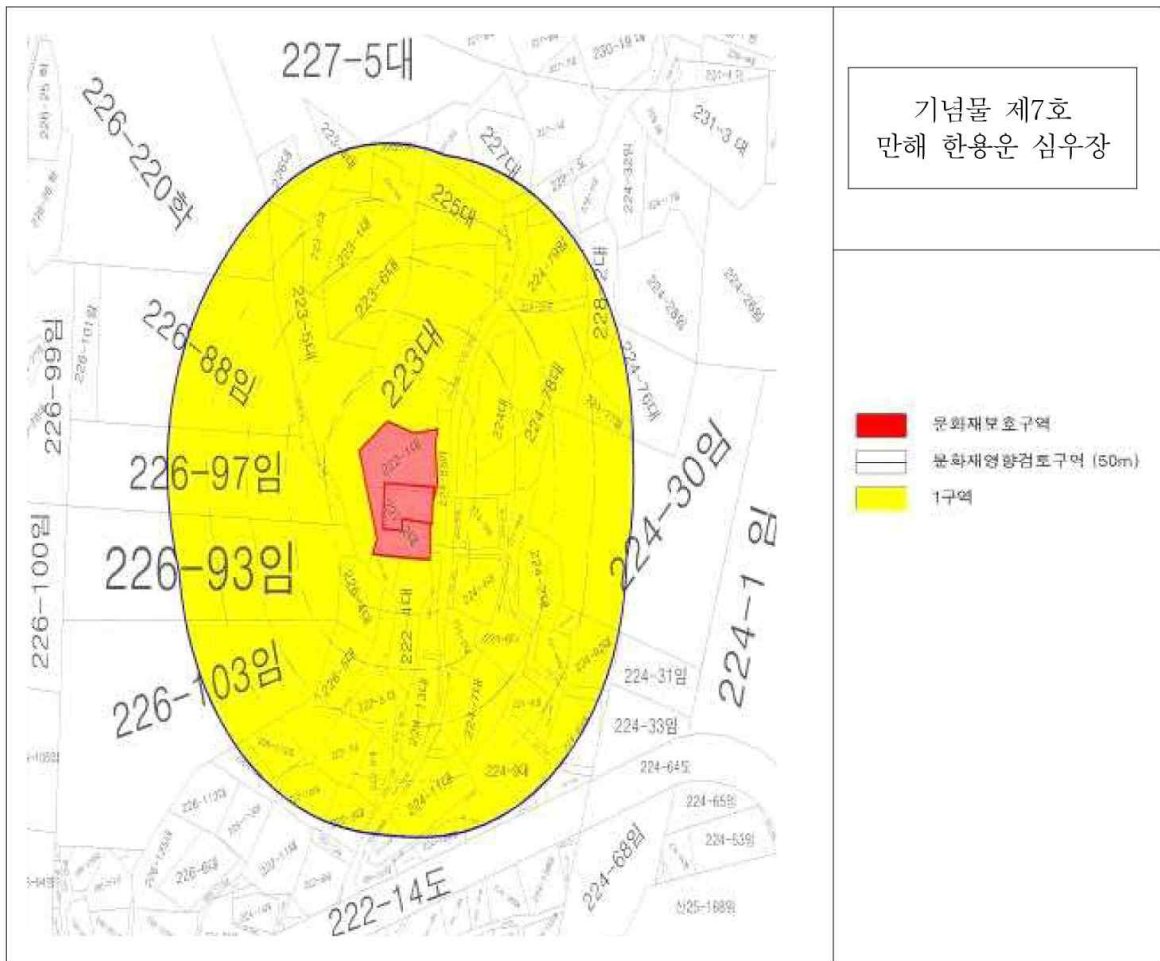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 의견 : 현재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관리되고 있으며,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지인 북정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재개발사업 대신 성곽마을 살리기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심우장의 사적지정은 성곽마을의 진정성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성곽마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북정마을의 움직임은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심우장 주변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위해요소가 아니며, 20세기초 도성밖에 형성된 성곽마을에 위치한 심우장은 한양도성의 진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좁은 경사지에 위치한 심우장의 입지특성을 감안할 때 대지경계성을 보호구역의 경계로 삼는 것이 심우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이웃과 공존하며 민족의 미래를 고뇌했던 만해선생의 삶을 기리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 서울시 기념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기념물 제7호 만해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 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유사한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심우장내 보존 정비 이력 및 종합정비계획

시 기	내 용
1999	성북구 공공용지 협의취득
1999. 11 ~ 2000. 5	원형 복원 공사
2007. 12 ~ 2008. 7	담장 보수 공사
2016	조적조 관리동 철거(73.52㎡) 및 관리사무소(20.43㎡) 신축

기존 심우장 정비 내용

- 현재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심우장 유적이 양호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만해선생이 신축했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축 당시에 존재가 확인되는 부속채 추정 건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부속채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심우장의 대지는 경사지에 성토하여 조성되었으므로, 부속채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심우장 본 건물의 독특한 공간구조에 대한 분석과 만해선생의 생존시 부속채와 함께 가족들의 거주와 만해선생의 사용에 대한 고증 작업도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이 심우장의 활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9. 종합 의견

-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선생이 짓고 거주하면서 독립운동 지사 및 문인들과 교류한 현장이자, 만해의 삶은 담고 있는 독특한 도시한옥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사적 지정시 문화재 명칭은 현재와 같은 ‘만해 한용운 심우장’을 유지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기준도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문화재 지정 후 주변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비계획 수립 시 신축 당시와 달라진 부분과 철거된 건물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면적: m 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건물면적(연면적, 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202	13.4 (13.4)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2-1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172							
				1동							
2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72.9 (72.9)	72.9 (72.9)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2-2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172							
				1동							
3	만해한용운심우장	1933	일반목구조	87	2.3 (2.3)	주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24-86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2.3 (2.3)							
				1동							
계				461	88.6 (88.6)						
				88.6 (88.6)							
				1동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성북동	222-1	대	202	13.4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2	성북동	222-2	대	172	72.9	성북구		성북구			
3	성북동	224-85	임	87	2.3	성북구		성북구			
계				461	88.6	성북구		성북구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시성북구	222-1	대	202	188.6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054호
2	서울시성북구	222-2	대	172	68.1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054호
3	서울시성북구	223	대	932	54	고창한외 7인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동천로153번길 6, 1408-1303 (한빛마을래미안이스트팰리스4단지)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054호
4	서울시성북구	224-85	임야	87	73.7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054호
5	서울시성북구	224-117	도로	141	2	심원섭외 4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응암로28, 2동502호(북가좌동, 연희한양아파트)	성북구	서울시성북구보문로168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054호
계				1,534	386.4					

7.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8.1.29.)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형식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이봉창 의사 선서문	1점	20.1×32.3cm	면 (섬유)	필사	1931년 (12월13일)	국립중앙 박물관장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2점	편지지 24.1×16.5cm, 봉투 13.0×7.8cm	종이	필사	1931년 (12월24일)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1점	14.4×21.2cm	종이	필사	1931년 (12월28일)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
 - A등급 34건(「이봉창 의사 선서문」 등 포함), B등급 104건, C등급 1,215건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8. 12. 21.)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

(3) 등록예고 : 2019. 2. 14. ~ 3. 15.(30일간) * 의견없음

(4)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등록번호(가지번호) 및 명칭 검토의견】

- 가지번호를 부여하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봉창 의사 선서문(1건)」,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봉투 및 의거자금 송금증서(1건)」 2건으로 등록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 위원(2018.12.21.)

- (선서문) 의거의 실행 이유와 의지를 보여주는 항일투쟁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임. 그런 점에서 선언서만을 단독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친필 편지와 봉투, 의거자금 송금증서)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에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가 어떻게 실행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임.

○ 000 단국대학교 교수(2018.12.21.)

- 이봉창의사의 일왕저격의거는 안중근과 윤봉길에 비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상태도 양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서신>과 <김구가 이봉창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이는 <이봉창의사 선서문>과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000 서강대학교 교수(2018.12.21.)

- (선서문) 한인애국단의 의열활동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자료로 이봉창 의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선서문은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 (친필 편지와 봉투, 의거자금 송금증서) 이봉창 의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이봉창 의사 선서문과 유물」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봉창 의사 선서문 /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 의거자금 송금증서
2. 소재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용산동 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3. 소유자 : 국립중앙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 위원(2018.12.21.)>

[이봉창 의사 선서문]

1) 현 상

- 대체로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李奉昌, 1900.8.10.~1932.10.10.) 의사가 일왕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백범이 1931년 12월 13일에 이봉창 의사를 안중근 의사의 아우인 안공근(安恭根)의 집으로 데려가서 선서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 있다.

이봉창 의사는 일본인의 양자가 되어 기노시타 쇼조(木下昌藏)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일본 만주 등에서 거주하면서 향락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인이라는 차별을 겪으면서 민족성을 찾고, 백범을 만나 의거를 실행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선언문을 공포한 다음해인 1932년 1월 8일에 관병식(觀兵式)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을 죽이기 위해 사쿠라다문(櫻田門)에서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성공을 못하였다. 바로 체포되어 1932년 9월 30일에 도쿄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10월 10일 이치가야(市谷)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의사의 유해는 1946년에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었고,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 선언서는 <사진1-1>에서 보듯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
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
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십삼년(1931)십이월십삼일 선서인
한인애국단앞 이봉창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은 1926년 12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인 백범 김구(金九)가 한중우호 증진과 일본 수뇌암살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제에 대한 파괴와 암살을 주도한 단체이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듬해에는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다. 윤봉길 의사도 거사 전에 선서문을 남겼는데, <사진1-2>와 같이 내용은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것인데 비해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선서문을 쓴 날짜와 인명은 먹색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으로 보아 날짜와 인명은 이봉창 의사가 쓴 것으로 판단되나 이전에 써놓은 나머지 선언문은 누가 언제 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p><사진1-1> 이봉창 의사 선서문</p>	<p><사진1-2> 윤봉길 의사 선서문 (국가문화유산포털) 보물 제568-1호(1972.8.16)</p>

3) 기타(참고자료)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11.
- 한시준, “李奉昌 義士의 日王狙擊義舉”,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6.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3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기록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의거의 실행 이유와 의지를 보여주는 항일투쟁 유물의 하나가 된다. 실제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항일투쟁은 이듬해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어지게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일제강점기 시대 항일투쟁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선언서만을 단독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봉창 의거 관련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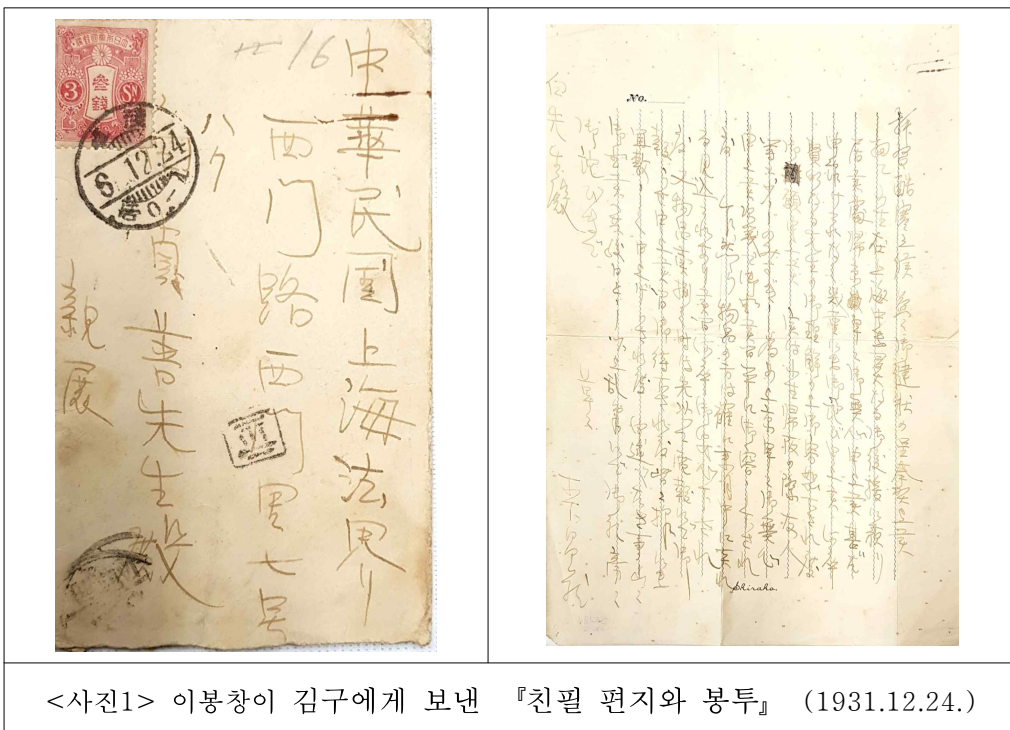
1) 현 상

- 『친필편지와 봉투』는 잉크색이 바랬으나 원형은 온전함.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온전함

2) 내용 및 특징

① 『친필 편지와 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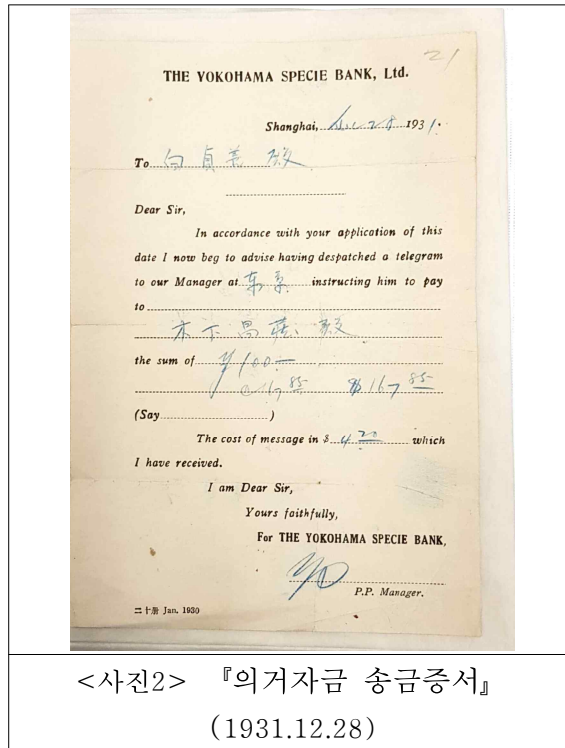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봉창의 유물은 선서문 외에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 그리고 김구가 이봉창에게 송금한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2종이 있다.
-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사진1>)는 봉투에 1931년 12월 24일의 소인(消印)이 찍힌 편지로 이봉창(기노시타 쇼죠, 木下昌藏)이 중국 상해의 김구(백정선, 白貞善)에게 보낸 일한문의 편지이다. 박물관 측에서는 편지봉투 뒷면에 이봉창이 쓴 일본이름의 영문 이니셜인 K.S를 따라 「K.S서간문」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백선생(白先生)”께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의거를 위해 도쿄로 간 이봉창이 김구에게 (의거자금)을 부탁하면서, 다음 달에는 거사가 확실하다며 확정되는 대로 전보로 알려겠다는 내용이다.
- 편지에서는 거사를 물품으로 표현하였는데, 곧 “물품은 확실히 다음 달 중에 팔리니까 아무쪼록 안심하십시오. 또한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전보로 알려 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物品の方は 確に 來月中に 賣れる 見込これあり候間 何卒御安心下され度. 又物品賣捌く時は 先以って 電報にて 御報らせ申上候間 御待下され度.)”라고 써 놓았다. 편지에서 일본에서의 의거를 “물품”으로 표현한 사례는 다른 기록에도 보인다. 아마 “물품이 팔린다.(물품을 판다.)”라는 용어는 두 사람이 의거를 실행하는 대체 용어로 약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이봉창의 의거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사진1>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 (1931.12.24.)

② 『의거자금 송금증서』

- 『의거자금 송금증서』 (<사진2>)는 1931년 12월 28일에 김구(백정선)가 상해에서 이봉창의 의거자금을 일본으로 보낸 송금증서이다. 박물관 측에서는 「영자지불통지서」(英字支佛通知書)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내용은 김구가 송금한 100엔을 일본의 "THE YOKOHAMA SPECIE BANK, Ltd"에서 도쿄의 이봉창(木下昌藏)에게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송금 증명서이다. 이 송금증서는 앞의 이봉창이 의거비용을 요청한 편지에 대한 답신인 셈이다. 『의거자금 송금증서』도 앞의 편지와 함께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하겠다.



<사진2> 『의거자금 송금증서』
(1931.12.28)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친필 편지와 봉투』와 김구가 이봉창에게 송금한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2종은 이봉창이 1932년 1월 8일에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의거가 어떻게 실행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아울러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문서를 『이봉창의사 유물』이라는 명칭으로 함께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8.12.21.)>

[이봉창의사 선서문]

1) 현상

- 선서문의 좌측면이 약간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섬유에 국한문으로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민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십삼년 십이월 십삼일 선서인 이봉창 한민애국단 앞”이라고 적혀 있음. 일본 국왕을 폭탄으로 암살하려고 한 거사(1932년 1월 8일) 직전에 맹세한 선서문임. 이 선서문은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과 거의 같으나, 의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즉 일본 국왕을 제거하고자 한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에는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라고 하였고, 일본군 지휘관을 주대상으로 삼은 윤봉길 의사는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라고 하였음.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자필인 것으로 보이나,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먹의 상태나 글씨로 미루어 한민애국단에서 작성해 놓은 선서문에 일자와 성명만을 적어넣었던 것 같음.

3) 문헌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이봉창 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이봉창의사장학회 편,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 김도형, 「이봉창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그 평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 의사 선서문」은 「윤봉길 의사 선서문」과 함께 한민애국단의 의열활동이 확인되는 직접적인 자료임. 이봉창, 윤봉길로 대표되는 한민애국단의 의열활동은 일본이 한국침략에 이어 중국침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저항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사였음. 특히 이봉창 의거는 일본 국왕을 대상으로 폭탄을 투척한 사건으로 일제가 ‘대역사건’이라 해석하는 대사건임. 따라서 이봉창 의사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이 선서문은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미 윤봉길 의사의 선서문은 관련 일괄 자료와 함께 보물 지정이 이루어져 있음.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이봉창 의거 관련 유물]

1) 현상

- 편지는 Shiraha(しらは[白羽]?) 편지용지에 세로 반흘림체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잉크색은 바랬음. 사각봉투에 접어서 동경에서 발송하였음. 1931년 12월 24일자 소인이 보임. 송금증서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①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의 편지는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에게 보낸 일본어 서신으로 청색 잉크로 작성되었음. 일본 동경에 도착한 이봉창이 상해의 백정선에게 도착과 물품입수가 가능하다는 현지상황을 알리고 있음. 봉투의 소인은 1931년 12월 24일자이고, 뒷면에 동경에서 K.S.(기노시다[木下])가 발신인으로 되어 있고, 수신한 김구의 필적으로 “봉창제일신(奉昌第一信)”이라고 적혀 있음. 이 편지는

이봉창이 동경에서의 의거를 ‘물품’으로 표현하였으며, 추가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음을 알려줌. 김구에게 의거가 1932년 1월에 있을 것을 언급하고 재정 지원을 부탁한 이 편지로, 이봉창 의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K. S. 서간문’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봉창) 친필 편지와 봉투’로 수정해야 할 것임.

② 의거자금 송금증서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백정선이 기노시타 쇼조(木下昌藏)에게 1931년 12월 28일 100엔을 요코하마 스페시뱅크[橫濱正金銀行, Yokohama Shōkin Ginkō] 상해 지점을 통하여 송금하였다는 내용임. 즉 이봉창의 편지를 받은 김구가 횡빈정금은행 상해지점을 통하여 거사자금 100엔을 송금한 영수증임. 이봉창은 1932년 1월 4일 송금액을 인출하였으며, 1월 8일 일본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함. 이 자료 또한 이봉창 의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자료를 ‘영자지불통지서’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봉창) 의거자금 송금증서’로 수정해야 할 것임.

3) 문헌자료

- 김구(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이봉창 의사 재판 관련 자료집』, 단국대학교출판부, 2004
- 이봉창의사장학회 편,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학교출판부, 2002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휴머니스트, 2015
- 김도형, 「이봉창의거의 역사적 성격과 그 평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0, 201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봉창 의사가 김구에게 보낸 편지인 ‘이봉창 친필편지와 봉투’와, 김구가 이봉창에게 거사자금을 송금한 ‘이봉창 의거자금 송금증서’는 ‘이봉창 의사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봉창 의거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이봉창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OOO 단국대학교 교수(2018.12.21.)>

1) 현상

- 훼손된 곳 없이 원본 상태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이봉창의사가 일왕을 처단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상해에서 “나는 (중략) 韓人愛國團의 一員이 되야 敵國의 首魁를 屠戮하기로 盟誓하나이다”라는 선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한인애국단에 제출한 것임. 선서문은 누군가가 미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봉창의사는 미리 작성된 선서문에 있는 宣誓人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쓴 것으로 생각됨. 이봉창의사는 일본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1931년 1월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를 만남. 이봉창의사의 일왕을 처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구는 자금과 폭탄을 준비하는 한편, 이봉창의사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홍구(虹口)에 가서 생활하도록 함. 자금과 폭탄이 마련되자 김구는 이봉창을 불렀고, 이봉창은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1932년 12월 13일 김구를 찾아옴. 이때 김구는 이봉창을 안공근의 집으로 데려가 한인애국단에 입단시키고, 선서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함께 사진을 찍음.

<이봉창의사 선서문>은 김구가 해방 후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1949년 김구가 서거한 후, 김구를 경제적으로 도왔던 김덕은이란 인물의 손에 들어감. 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덕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이봉창의사 선서문> 이외에 <이봉창이 김구에게 보낸 서신>과 <김구가 이봉창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이는 <이봉창의사 선서문>과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문헌자료

- 이봉창의사장학회, 『이봉창의사와 한국독립운동』, 단국대 출판부, 2002
-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 2006
- 김도형, 『이봉창』, 역사공간, 2011

4) 기 타

- 이봉창의사의 일왕저격의거는 안중근의사의 이등박문 처단의거와 윤봉길의사의 상해의거와 더불어 한국의 3대 의열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안중근과 윤봉길에 비해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봉창의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이 <이봉창의사 선서문>이라고 할 수 있음. 상태도 양호하고, 역사적으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검 토 사 항

8. 「고성 감시초소(GP)」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소재 「고성 감시초소(GP)」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감시초소(GP)」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2.1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고성 감시초소(GP) :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초소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고성 감시초소(GP)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산1번지
- 용도 : 군사시설(GP) *(현)용도없음
- 소유자 : 국방부
- 수량 및 면적 : 감시초소(GP) 일곽, 330m²
- 건립시기 : 1953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추진경과 :

-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의 시범철거 과정에서 보존 결정('18.9월)
- 문화재 등록 추진을 위한 전문가(3인) 현지조사('19.2.14)
- 등록 추진 및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국방부 업무협약('19.3.21)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위원(2019.2.14.)

- 반세기가 넘는 오랜 대치상황 속에서 군사적 감시시설의 일부를 남김으로써 세계적 냉전시기를 거치며 적대적 관계를 이어 오던 현장의 유구를 통하여 앞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상호상잔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

○ 000 문화재위원(2019.2.14.)

- 고성 감시초소는 1953년 남측 지역에 최초 설치된 GP로서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장소성 등을 지니고 있고 또한 향후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동해안 감시초소는 병력, 장비가 철거되면서 각종 비품, 생활용품, 부대시설 등이 함께 철거되었지만, 향후 GP 활용에 따른 전시, 복원을 위해서는 별도 장소에 보존, 관리하고 기록화 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범위는 GP 구조물뿐만 아니라 진입로, 축대, 철조망, 음식운반용 삭도, 남북 GP간 연결 오솔길 등 주변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000 문화재위원(2019.2.14.)

- 보존 GP는 남북 분단과 냉정체제의 지속과정과 평화협력시대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함
- 단, 문화재 등록 범위는 GP자체 외에 GP로의 진입로(다른 군사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 고려할 것), 보급용 케이블카, 남북 GP 상호검증을 위한 오솔길이 포함되어야 GP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며 진정성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GP를 제외한 주변 시설물은 국방부와 추후 검토
- 명칭은 「고성 동해안 000 감시초소(GP)」로함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고성 감시초소(GP) (구) 감시초소(GP)

2. 용 도 : (현) 용도없음 (원) 군사시설

3.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덕산리 산1번지

4. 소유자 : 국방부(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53년
- 수량 및 면적 : 감시초소(GP) 일곽, 330㎡

6. 조사자 의견

< OOO 문화재위원(2019.2.14.) >

1) 개요

- 1953년 7월, 한국전쟁 정전 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소초임.
- 1962년 12월 시설물 증축, 1989년 10월 현대화 공사(1차), 2007년 12월 현대화 공사(2차)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 군사합의”(남북 각 11개 GP:Guard Post - 小哨-철수 합의)에 의해 철수GP를 선정하여 2018년 10월22일부터 11월5일까지 GP의 화기 및 장비 철수, 11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GP병력 철수, 2018년 11월 7일 GP 임무 종료.
- 대한민국 최동북단에 위치한 적과 가장 근접한 (580m) GP임

*<참고>

일반전초(GOP:General Outpost)는 관망대와 초소, 통문, 소초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관망대는 주야간 경계근무를 위한 구조물이며 통문은 감시초소와 연결된 일종의 통행문이다. 초소는 감시 등을 위해 근무를 서는 곳으로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며 주야간 경계근무 하는 병사들의 휴식을 위한 대기초소도 있다. 소초(GP)는 소대단위 병력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외벽은 개구부를 최소화 하였음. 병력의 생활공간과 기기실 등이 설치된 본체는 개략적으로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하부의 외부로는 일정간격으로 감시초소(산병호), 통로가 연결되어 있음. 그 내부에는 내무반(생활관) 조정실, 무기고, 취사장, 식당 등이 있음
- 이 건물 본체의 옥상에는 감시실과 포대 그리고 감시탑이 설치되어 북측의 상황을 지켜 볼 수 있게 되어 있음



산병호



산병호



GP상부



공용화기진지

그림 1> 본체 내부 및 옥상



입구



복도



생활관



상황실

그림 2> 건물 본체 내부공간의 모습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의 건립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증개축이 있어 왔지만 원래의 구조를 훼손, 철거하면서 이루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단, 주요 구조부위는 대체적으로 남아 있으나 예를 들어, 내무반의 가구, 감시장비 제어실의 장비들, 철조망 등 이곳에 구비되었던 최후의 모습들 중 제거된 요소들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아직 군사구역이며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며 남북 공동으로 넘기기로 합의하여 존치시킨 유구이므로 보존 및 관리에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분단시기의 유구로서, 평화를 위한 교훈의 유적지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방문 및 체험의 장으로서 높은 가치와 의미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군 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남북평화 유지를 위한 문화유산으로서 또한 오랜 세월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지켜 나갈 사이트로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비무장지대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GP와도 비교하고 이 유구들을 연결하여 평화유지를 위한 사이트로서 입체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고성 진지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후 축조된 가장 초기의 진지로 알려져 있다. 축조 후 오늘날까지 여러 차례 증축과 개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 진지에는 보통 2개월 간격으로 40~50명의 병사들이 투입되어 거주하며 경계, 감시업무, 취침과 휴식, 취사 및 식사, 여가활동을 하였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부대 인원들과 교대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어져 왔음
- 비무장 지대 안에서 북측의 동태파악을 비롯하여 적의 공격과 침입, 탈북, 투항 등의 사태에 대비한 경계활동에 사용되었던 이 시설은, 북측에서도 우리 측 군에 대하여 똑같은 활동을 펼치는 데에 사용된 시설들과 대척점에 있음. 2018년에 연이어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결과, “9.19 남북 GP 철수합의”의 일환으로 양측 11개소의 진지를 철수하고 상호 현장방문, 확인하였음
- 반세기가 넘는 오랜 대치상황 속에서 군사적 감시시설의 일부를 남김으로써 세계적 냉전시기를 거치며 적대적 관계를 이어 오던 현장의 유구를 통하여 앞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상호상잔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교훈을 얻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이 진지는 1953년 축조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증축과 개변조가 있었음
- 현황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계속 덧붙여서 필요 시설들을 건축한 상태이기에 짧은 조사일정과 보안상의 사유로 인해 제약이 많았던 관계로 명확한 구조물 이력과

현황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기록하기는 어려웠음

- 하지만 최초의 진지 구조물 위에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구축된 시설물들이 변화돼 온 상황을 외관상으로나마 확인하였고 북측의 진지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고 대치하였던 진지라는 점, 비무장지대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상징성 등의 사유로 한국근현대사 중 가장 뼈아픈 분단의 현장, 최전선의 유구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후세에게 전해 줘야 할 전쟁의 유구라고 판단됨
- 여기에서 우리는 서울의 아차산성과 보루군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삼국시대 기간 중 고구려의 최남단 경계선에 설치되었던 당시의 군사시설들의 유구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해 주고 있음. 이렇게 우리시대에 만들어 낸 건축물들을 남겨 둠으로써 후세에게 이 시기의 역사와 교훈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지난 해 철수작업에서 양측의 상호확인을 위하여 생성된 점검로와 부식조달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케이블카 설비도 GP의 존립과 지원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구로 함께 존치시킬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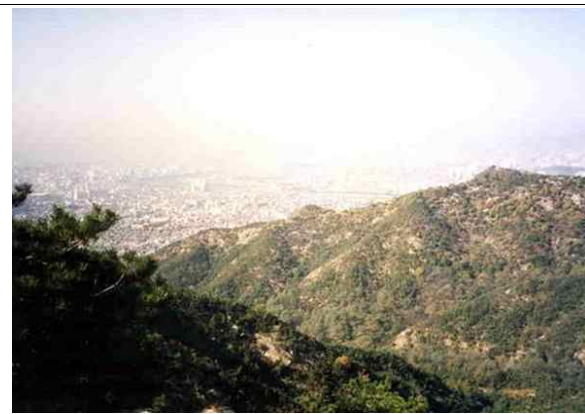


그림 3> 아차산성 보루군 (윤인석 사진)



그림 4> 아차산성 발굴유구 (유승률 사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1안-비무장지대 강원도 고성 소초(GP)
- 2안-비무장지대 강원도 고성 829GP
- 3안-비무장지대 강원도 고성 진지

< 000 문화재위원(2019.2.14.) >

1) 개요

- GP(Guard Post)는 비무장지대(DMZ) 내에 설치된 최전방 감시초소로 군사분계선(MDL)에서부터 남북방향으로 각각 2km 범위내에 위치하며, 남측 GP는 60여개, 북측 GP는 16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로 2018년 9월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은 2018년 말까지 GP

11개씩을 시범 철거하기로 합의

- 2018년 11월 남북은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감시초소에 대한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여 시범철수하기로 한 11개 GP 중 각각 1개씩 보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보존대상 GP를 제외하고 각각 10개씩을 2018년 11월 완전 철거
- 철거대상 GP중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하였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50m 떨어진 중부전선의 까칠봉GP를 보존하였으며, 남측은 최초로 설치되어 역사성이 깊은 동해안 감시초소(GP)를 보존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해안 감시초소(GP)는 한국전쟁 말기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남측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어 최근까지 운영되었던 감시초소로, 현존하는 남측 GP중 역사성이 가장 깊은 GP
- 과거에는 369GP라 지칭되기도 하였으며,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는 철거된 북측 GP와 580m 거리를 두고 위치하여 북측 GP와 최근 거리에 위치한 남측 GP
- 기본적 입지조건은 강원도 고성군의 높은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군사적으로 주변 비무장지대 감시에 유리하며 또한 동해안에 인접하여 구선봉 등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는 감호(鑑湖) 등을 근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조망 가능
- 이상과 같은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장소성 때문에 본래 남북군사협약에 따라 철거되기로 예정되었던 11개의 남측 GP중 유일하게 보존하기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 11월 병력, 장비가 철수되고 현재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
- 주변 비무장지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산 정상부에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성곽 요새처럼 폐쇄적, 방어적 구조로 구축되었으며, 외벽은 사격과 감시를 위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폐쇄적 옹벽 형식으로 구축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을 다중의 담장형식으로 설치
- 내부는 상황실, 산병호(散兵壕), 무기고 등의 감시시설과 내무반, 식당, 욕실 등의 생활시설과 복도, 홀, 계단 등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옥상부에는 망루형식의 높은 감시탑, 공용화기 진지, 소규모 운동시설 등이 위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53년 7월 최초 건설된 이후 1961년 12월 증축되고 1989년 10월 제1차 현대화 공사, 2007년 12월 제2차 현대화 공사를 거치며 최초 원형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
- 전체적으로 GP의 기본적 기능과 공간구조는 그대로 유지, 보존되고 있지만, 현재 운영이 중지된 상태로 비워져 있으므로 점차 노후화 및 훼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GP가 위치한 비무장지대는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군사보호구역이므로 보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인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와 같이 비워진 상태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노후화 및 훼손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활용 및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군사시설로서 남북분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등록문화재는 철원 노동당사 (등록문화재 제22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제78호) 등의 사례가 있지만, GP와 같이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의 현실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GP)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의 결과로 설치되어 그 동안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의 대표적 상징으로 인식되었지만,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채 보존되면서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 동해안 감시초소(GP)는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남측 지역에 최초로 설치된 감시초소이며,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GP와 580m 거리를 두고 북측 GP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였던 남측 GP라는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높은 산 정상부에서 동해안에 인접하여 구선봉 등 금강산 자락과 해금강,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전해지는 감호 등을 근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장래 상호연계 활용할 수도 있는 등 입지조건이 양호
- 이상과 같이 동해안 감시초소는 1953년 남측 지역에 최초 설치된 GP로서 역사성, 상징성, 대표성, 장소성 등을 지니고 있고 또한 향후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동해안 감시초소는 병력, 장비가 철거되면서 각종 비품, 생활용품, 부대시설 등이 함께 철거되었지만, 향후 GP 활용에 따른 전시, 복원을 위해서는 별도 장소에 보존, 관리하고 기록화 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범위는 GP 구조물뿐만 아니라 진입로, 축대, 철조망, 음식운반용 삭도, 남북 GP간 연결 오솔길 등 주변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현재는 동해안 감시초소(GP)가 최초 등록이고 유일한 사례이지만, 추후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추가적 등록이 예상되므로, 등록명칭은 이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금회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잔해물의 기록화, 보관,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비무장지대 내의 감시초소 등 한국전쟁 및 군사 유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000 문화재위원(2019.2.14.) >

1) 개요

- 정전협정 남측에 지어진 최초의 GP로 남북분단이 장기화되고, 냉전이 심화되면서 수차례에 걸친 증축을 거쳐 현재에 이룸. 규모의 확대는 냉전의 심화를 의미.
-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우발적 사고가 우려되는 근접 GP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고 철수 GP가 선정되었으며, 2018.10.22.~11.5 사이에 GP내 화기와 장비를 철수하고 현 고성GP만 남긴채 10개의 GP를 완전히 철거했음

- 고성GP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GP중 1 곳씩을 장비만 철수한 후 GP는 물리적으로 보존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존되었음
- 고성 829GP 맞은편에 위치했던 북한의 175GP는 완전히 철거되었으며, 남과 북은 상호간에 체결된 군사합의의 이행여부를 상호 검증하기 위해 오솔길을 새로 개설하여 남과 북의 군사관계자들이 오고가며 검증을 실시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53년 최초로 지어진 후 수차례에 걸쳐 철근콘크리트로 증축되었으나, 군사시설이라는 특성상 도면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음. 신축과 증개축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 시설은 3중의 울타리로 보호되고 있으며, 고지 정상에 위치하고, GP내 병력이 2개월 동안 고립되어 생활하는 시설 특성상 내에는 무기고는 물론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숙박기능은 물론 주방과 운동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었음
- 외부에서 음식 등 각종 지원을 위한 길이 개설되어있으며, 최근에는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게이블시설도 운영된 바 있음.
- 방어를 위한 3중 철조망외에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 진입을 위한 출입구와 GP내 시설중 내부반에는 금고형 철문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유사시에 적의 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
- 1층 내부에는 내부반, 주방, 식당, 무기고가 위치해 있으며, 외곽에는 감시와 유사시 전투를 위한 시설이 위치함
- 지상에는 각종 감시초소와 화기 그리고 근무자를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현재 GP시설중 불박이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는 철거되었고 비군사시설이었던 운동시설과 주방 등 대부분의 시설도 철거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관은 철수 직전의 모습을 매우 양호하게 갖추고 있으나, GP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던 당시의 가구와 설비가 철거되었음
- 본 보존GP의 장비철수와 보존 결정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현장성 및 진정성 확보를 위해 운용되던 GP의 모습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철거된 시설중 829GP에서 철거된 장비에 대한 보존 조치가 필요함
- 보존된 장비 또는 철거 전에 촬영된 사진자료 및 동영상 자료 GP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구술채록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존 및 활용계획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현 시설에 대해서는 신축과 증개축 관련 도면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증개축에 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며, 동시에 현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 가구와 장비는 철거되었고, 증개축이 완성도 높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매우 튼튼하게 건설되어 노후정도는 심하지 않음
- GP의 증개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옥상에 설치된 감시 초소임. 감시초소는 다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증개축 시기에 따라 외부로 드러난 벽체와 슬래브의 모습이 다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보존GP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보존 관리를 위한 주변 환경은 매우 양호함
- 현 보존 GP의 외곽은 3중의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고, 외관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향후 원 모습 보존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외곽에 위치한 진입로와 GP내에 음식 등 보급을 위한 소규모 케이블카가 존재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보존이 결정된 829GP에 대한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남북 분단의 긴장을 보여주는 시설이 존재하고, GP내 근무하던 군인들의 근무환경과 군문화를 보여주는 시설들이 보존되어 있어, 향후 평화협력의 시대에 우리가 겪었던 또는 겪고 있는 분단과 냉전시대의 역사적 교훈 확보를 위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구체적인 보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일반의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
- DMZ내에 위치한 시설의 성격상 훼손 우려는 없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GP가 갖는 역사성 시대성 현장성 등을 감안한 계획 수립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이 시설 내부가 비워진 상황보다는, 철거된 장비나 가구 등에 대한 고증과 도면화 작업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활용계획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일 유형의 근대유산은 사례가 없어 가치비교가 어렵다. DMZ내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등이 입지면에서는 유사하나 시설의 성격이 다름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보존 GP는 남북 분단과 냉정체제의 지속과정과 평화협력시대의 현장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함
- 단, 문화재 등록 범위는 GP자체 외에 GP로의 진입로(다른 군사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 고려할 것), 보급용 케이블카, 남북 GP 상호검증을 위한 오솔길이 포함되어야 GP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며 진정성 확보할 수 있을 것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강원도 고성 829GP

9. 「부산 구 동래역사」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부산 구 동래역사」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구 동래역사」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3.1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래구청장
- (2) 대상문화재 : 옛 동래역사 (*소유자 신청 명칭)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12-3번지
 - 용도 : 철도시설 *(현)용도없음
 - 소유자 : 부산광역시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관리자 : 동래구청장(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221.95㎡, 연면적 221.95㎡)
 - 건립시기 : 1934년
 - 구조 : 목조(일식)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OOO 문화재위원(2019.3.14.)**

- 동래역은 1934년 동해남부선에서 최초 완공된 부산진에서 해운대 구간의 철도역으로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 도면이 현존하여 원형 고증이 확실하고 현재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함
-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표준형 철도역을 기본적 건축형식으로 하였지만, 외관 박공지붕, 외부벽체 하단부 등에서 표준형 철도역으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기법을 구사함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자 출발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 초급장교 출발역으로, 해방 이후 동래지역 통학 및 통근 시종점 역으로, 최근까지 30년 동안 광장에서 새벽시장이 개설되는 장터 역으로 오랜 기간 이용되면서 근대기 지역생활의 중심지로 역할을 함
- 이상과 같이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근대기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3.14.)**

- ‘부산 옛 동래역사’는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 역사로서 당시 작성된 표준설계 도면 등을 통해 철도역사의 건축적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일제강점기 수탈의 목적으로 최초 건립되었지만, 해방 이후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부산시민의 수많은 애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전쟁 당시 인근에 위치한 동래고등학교가 군사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동래역이 병역 수송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역의 근대 역사 자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밖에, 신역사 건설로 인해 멸실 위기에 처했던 것을 부산광역시가 매입, 지역의 역사적 산물로서 향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간, 전시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OOO 군산대학교 교수(2019.3.14.)**

- 기존 등록문화재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며 차양 등의 처리에서 기존 철도역사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이 확인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 및 공간구성, 지붕 구조 등은 보존되어야 함.
- 굴뚝이 멸실되었고 개구부, 내외부 마감 등이 변형되었으나 동래구에서 원형 복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하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동래역 (구) 동래역
2. 용 도 : (현) 용도없음 (원) 철도역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7
4. 소유자 : 부산광역시장 (관리자 : 동래구청장)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34년 7월 5일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연면적 221.95㎡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9.3.14.) >

1) 개요

- 일제강점기 일제는 함경도 일대 풍부한 지하자원의 운송, 수탈과 만주, 러시아 지역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함경선 철도를 부설하였으며, 함경선은 경원선 종착지 원산에서부터 1914년 건설을 시작하여 1928년 회령까지 연결하여 완공
- 일제는 본격적인 한반도 수탈을 위한 철도망 확충을 목적으로 1927년 「조선철도 12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38년까지 동해선, 경전선, 도문선, 해문선, 만포선의 5개 철도노선 신설을 추진
- 동해선은 동해안 지역의 석탄, 목재, 해산물 등 풍부한 자원을 운송, 반출하기 위해 경원선 종착지이자 함경선 시발점이었던 원산과 일본에 근접한 남쪽 항구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
- 동해선의 남쪽 구간에 해당되는 동해남부선은 1930년 부산진에서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1934년 해운대, 1935년 울산, 1936년 경주까지 각각 확장, 연결되었으며, 1945년 포항까지 완공
- 동래역은 1930년 동해남부선 건설이 시작된 후 최초로 부산진에서 해운대 구간이 1934년 완공되고 4개 역이 설치되면서 1934년 7월 15일 서면역, 수영역, 해운대역과 함께 영업을 시작
- 동래역은 일제강점기 당시는 학도병, 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강제징용자들의 출발역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는 동래고, 동래여고 등 주변학교가 육군사관학교, 육군보병학교, 육군종합학교로 전용되면서 훈련된 초급장교들이 전방으로 출발하는 역으로 역할
- 동래역은 해방 이후 동래지역 많은 통학생 및 통근자의 시종점 역으로, 무연탄이

강원도 탄광에서 운송, 도착되는 무연탄 도착취급역으로, 2012년 폐쇄될 때까지 30년 동안 광장에서 새벽시장이 개설되는 장터 역으로 이용되면서 오랜 기간 근대기 지역 공동생활의 중심지로 역할

-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으로 본래 동래역은 2016년 폐역이 되고 근처에 새로운 동래역이 건설되었으며, 본래 동래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철거될 위협에 처하자 2015년 문화재청이 부산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에 등록문화재 신청을 권고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취소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동래역을 보존, 활용하고자 2018년 소유권을 확보하고 금회 등록문화재를 신청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래역은 1930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동해남부선에서 부산진부터 해운대 구간이 최초로 완공, 개통되면서 서면역, 수영역, 해운대역과 함께 1934년 7월 15일 영업을 시작
- 동래역의 1934년 건축 당시 원형 및 현황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건축사업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래역본옥신축(東萊驛本屋新築)」, 「동래역부속가신축(東萊驛付屬家新築)」 도면을 통해 파악 가능
- 1934년 건축 당시 동래역은 본채와 부속채가 나란히 철도에 평행하게 배치되었으며 창고,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면적 49.4m²의 부속채는 이후 철거되었고 현재는 본채만 남아 있는 상태
- 본채는 1층 규모, 면적 221.95m², 목조, 박공지붕 형식이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역 표준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일반적 역사 보다는 규모가 약간 크고 외관에서 일반적 기법과 다른 특징적 기법을 구사
- 건립 당시 평면은 일자형으로 대합실과 사무실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실은 내부에 매표실, 운전실, 숙직실, 보관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었고 대합실은 대기실, 매표구, 개찰구, 주출입구 등으로 구성
- 외관에서 주출입구와 개찰구를 연결하는 중앙부 상부 박공지붕과 철도에 면한 운전실 상부 박공지붕을 경사를 매우 심하게 형성하고 형태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외벽 하단부는 일반적이지 않은 시멘트 위 자연석 붙임으로 마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4년 건축 당시 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기본적 건축형식은 원형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일부 노후화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도 양호
- 내부에서는 사무실에서 숙직실, 보관실, 탕비실 부분의 평면구성이 일부 변형되었으며, 외관에서는 지붕재료가 본래 슬레이트에서 시멘트 기와로 변형되었고 창호 재료 전체가 변형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부산광역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동래구에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보존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등록 후 원형복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부산광역시와 동래구에서는 등록문화재 등록 후 동래역 및 근대역사 관련 전시실, 주민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 용도와 역사적 가치, 의미를 지키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서울 구 신촌역사(제136호), 부산 송정역(302호) 등 23건의 철도역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동래역은 일제강점기 표준형 역사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기법을 구사하였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고증자료도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동래역은 1934년 동해남부선에서 최초 완공된 부산진에서 해운대 구간의 철도역으로 건립되었으며, 건립 당시 도면이 현존하여 원형 고증이 확실하고 현재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
-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표준형 철도역을 기본적 건축형식으로 하였지만, 외관 박공지붕, 외부벽체 하단부 등에서 표준형 철도역으로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기법을 구사
- 동래역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자 출발역으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 초급장교 출발역으로, 해방 이후 동래지역 통학 및 통근 시종점 역으로, 최근까지 30년 동안 광장에서 새벽시장이 개설되는 장터 역으로 오랜 기간 이용되면서 근대기 지역생활의 중심지로 역할
- 동래역은 이상과 같이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근대기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부산 구 동래역사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9.3.14.) >

1) 개요

- ‘부산 옛 동래역사’는 일제강점기 동해남부선에 설치된 보통역 중의 하나로 1934년 7월 15일 건립되었음.
-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전역에 철도가 부설됨에 따라 간단한 형태의 목조건축에서부터 양식주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역사(驛舍)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음.
- 이들 역사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정해진 소위, 표준설계를 기준으로 설계, 공사되었는데 건립 당시 동래역의 모습은 ‘동래역본옥신축(東萊驛本屋新築)’과 동래역부속가신축(東萊驛附屬家新築) 도면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 역사는 최초 건립 당시 본채(사무실,대합실) 1동과 부속채(화장실,창고) 1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랜 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부대시설(창고 등)의 증개축 과정이 반복되어 왔으나, 현재는 역사의 본채만 남아 있음.
- 이번에 등록 신청한 ‘옛 동래역’은 2015년 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2016년

인접한 곳에 ‘동해남부선 동래역’이 새롭게 설치, 운영됨에 따라 철거 예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존 협조를 요청하였고 그 후, 2018년에 부산광역시가 코레일로부터 역사를 포함한 일대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음(다만, 2016년 동해남부선 동래역 신설 과정에서 선로 및 승강장 등의 부대시설 모두가 철거된 상태임).

-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관할 구청인 동래구에 관리 전환한 상태이며, 구청에서는 향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간 및 전시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 ‘옛 동래역’은 비록 일제강점기 수탈의 목적으로 최초 건립되었지만, 해방 이후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부산시민의 수많은 애환을 그대로 간직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역사는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하여 북쪽에 주출입구를 두고 있으며, 반대편인 남쪽에 철로와 승강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임.
- 내부 공간은 크게 직원들을 위한 업무 영역과 승객들을 위한 대합실 영역으로 구분되며, 업무 영역은 사무실과 열차 운행과 관련된 조종실, 남·여숙직실, 탈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의 평면 구성은 최초 건립 당시와 비교해 다소 변화는 있어 보이며, 대합실 남쪽면 출입구 쪽에도 승강장으로 연결된 개찰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된 상태임.
- 전체적으로는 일(一)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지만, 운전실 공간이 사무실 남쪽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되어 나와 있고, 이와 대칭되게 대합실 쪽에는 차양칸이 외벽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음.
- 사무실과 대합실 사이에는 칸막이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벽체 내부에는 본래 굴뚝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지붕위로 돌출된 굴뚝 상단부는 보이지 않음.
- 사무실 동측면 외벽면에는 개구부(3개소)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1965년 당시 창고를 외벽에 덧붙여 증축하는 과정에서 폐쇄되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창고 시설에 대한 증축 공사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며, 이 과정에서 최초 본채와 함께 건립되었던 부속채(화장실, 창고) 역시 철거되었음.
- 상부 지붕가구와 기초, 벽체 축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으나, 소유자측에서 제출한 ‘부산 동래역 원형복원 고증조사 보고서(2017)’에 의하면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목조 벽체 가구를 구성한 뒤 그 위에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로 구성한 것으로 보임. 특이한 것은 외벽 하부에 축조된 콘크리트 벽면에 자연석을 붙여서 마감하였음.
- 현재 외벽면에 설치된 개구부와 창호는 모두 후대에 교체된 것으로 본래는 미서기창, 미닫이창, 오르내리창, 고정창 등 다양한 형태의 창호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임.
- 지붕은 동서방향으로 긴 일(一)자형의 맞배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면과 배면 출입구 상부에는 별도의 박공지붕을 덧붙여 입면의 의장성을 강조하였으며, 배면 운전실 상부에도 이 보다는 작은 규모의 박공지붕을 설치하였음. 또한, 차양칸 상부에 설치된 지붕은 별도의 눈썹지붕 형식으로 달아낸 것이 아니라, 본채 지붕에서 꺾음 지붕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적 이라 할 수 있음.
- 지붕에는 일체형 슬레이트 기와를 깔았으나,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최초 건립 당시에는 골슬레이트로 마감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오랜 세월동안 역사의 기능으로만 줄곧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역사의 기능을 상실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보존상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보임. 다만, 지붕재료 및 개구부, 창호 창틀, 내부 공간 구성(간막이벽 등), 마감재 등에서 일부 변형이 있어 보이나, 고증자료를 통해 원형으로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신역사 건설로 인해 멸실 위기에 처했던 것을 소유자인 부산광역시가 지역의 역사적 산물로서 인식하여 매입하는 등 보존관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또한 관리단체인 동래구청이 향후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간 및 전시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이 단순한 오래된 간이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역사 교육의 장소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오늘날 간이역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지만,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옛 동래역사’가 갖는 역사적 맥락속에서 보존 가치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산 옛 동래역사’는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 역사로서 당시 작성된 표준설계 도면 등을 통해 철도역사의 건축적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비록 일제강점기 수탈의 목적으로 최초 건립되었지만, 해방 이후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부산시민의 수많은 애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전쟁 당시 인근에 위치한 동래고등학교가 군사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동래역이 병역 수송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역의 근대역사자원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이밖에, 신역사 건설로 인해 멸실 위기에 처했던 것을 소유자인 부산광역시가 매입, 지역의 역사적 산물로서 향후,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간, 전시시설,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부산 구 동래역」

< 000 군산대학교 교수(2019.3.14.) >

1) 개요

- 동래역사는 1934년 7월 15일에 준공된 동해남부선 동래역의 철도역사로서 목구조 단층 건물로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이루어짐.
- 신설 동래역의 역무기능이 시행(2014년 11월 5일)되면서 2015년 10월 12일에는 일반 여객취급이 중지되고 무배치 간이역으로 변경됨.
- 일제강점기 후반 전시 체제하에서 학도병과 징용, 정신대 등 인적 수탈의 현상이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초급장교가 임관하여 전방으로 배치되던 출발점이었음. 또한, 학생과 시민들의 통학열차 및 통근열차가 운행되었고, 2012년까지 30여년 동안 동래역 광장은 새벽시장이 열리던 서민 생활의 중심이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래역사는 일자형 평면으로 대합실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실 내부는 사무공간과 운전실, 숙직실, 보관실 등으로 구성됨. 대합실에서 개찰구를 통해 플랫폼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찰구 밖에는 지붕을 연장하여 차양을 설치함.
- 대합실에는 매표소와 소화물 취급 창구를 두었고 소규모의 매표과 벽면 방향으로 의자를 두어 승객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광장에 면한 정면의 우측 대합실 입구 쪽으로 박공을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고 대합실 입구에는 캐노피를 설치한 포치를 둠. 현재는 멸실되었으나 대합실과 사무실 사이와 숙직실 쪽에 굴뚝이 있어 입면에서 시각적 초점을 형성함.
- 배면쪽에서도 대합실에서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출입문 상부에 박공을 설치하였고 철길 방향으로 돌출된 운전실 위쪽에서 박공을 설치하였음. 대합실 출입문 위쪽으로 지붕을 경사도가 다르게 연장시켜 차양 역할을 하도록 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 및 공간 구성은 보존되어 있으며 최근까지도 건축물을 사용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함.
- 건축물의 세부적인 공간 구성은 신축 당시와 차이가 있고 내·외부 벽체의 마감 및 개구부 등의 변형, 배면 차양 하부 마감 등이 원형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 신축 당시의 도면이 남아있어 원형 복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건축물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 인접한 주변 환경은 현재 정비 과정 중이며 향후 쾌적한 도시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좋은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원형을 복원하여 동래역의 역사에 대한 소개 및 전시,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집회 시설 등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축 당시의 도면이 남아있어 원형 복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복원 공사시 복원 방향 및 활용을 위한 정비 등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소규모 철도역사를 등록문화재로 보존 및 활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음. 기존 등록문화재에 비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며 차양 등의 처리에서 기존 철도역사에서 볼 수 없는 특성이 확인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 및 공간구성, 지붕 구조 등은 보존되어야 함.
- 굴뚝이 멸실되었고 개구부, 내외부 마감 등이 변형되었으나 동래구에서 원형 복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하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부산 구 동래역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0.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구 산일제사 공장」의 문화재 등록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산일제사 공장」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3.1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2) 대상문화재 : 구 산일제사 공장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60-1외 8필지
 - 용도 : 폐산업시설(공장)
 - 소유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수량 및 면적 : 3동, 건축면적 309.64㎡, 연면적 360.46㎡
 - 학사관 : 1동(2층), 건축면적 59.10㎡, 연면적 109.92㎡
 - 공장동 D : 1동(1층), 건축면적 183.89㎡, 연면적 183.89㎡
 - 재료실험동 B : 1동(1층), 건축면적 66.65㎡, 연면적 66.65㎡
 - 건립시기 : 1942년(학사관), 공장동D(미상), 재료실험동B(미상)
 - 구조 : 목조
- (3) 검토대상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1> 참조

○ ○○○ 문화재위원(2019.3.18.)

①학사관

- 공장시설의 사무동, 기관실로 사용된 건물로 이 유구들의 중심시설이었으므로, 그 기능과 용도 그리고 원형 잔존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등록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나, 현재 전면적 해체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등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②공장동D

- 생산시설군의 가장 핵심인 공장건물로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기에 교육시설로 사용되었던 지역의 근대사, 제사공장에서 제지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건물구성에 변화가 생긴 흔적 등, 지금의 상태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③실험동B

- 건물의 부분 절단, 변형 등이 심하게 일어나 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문화재위원(2019.3.18.)

<학사관>

- 학사관은 1942년 건축된 2층 일식목조 건물로 본래 공장에서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관리동 용도로 추정되며, 1층은 사무실 업무공간, 2층은 일본식 주거공간으로 각각 구성
- 학사관은 본래 근대산업유산으로 업무와 주거의 공간이 복합된 공장시설이고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도 활용되었다는 건축적, 역사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이므로, 등록문화재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학사관은 현재 활용 중심의 보수공사가 시작되어 해체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등록하기 보다는 문화재청과 협조하여 원형복원 중심으로 설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원형복원 공사완료 후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임

<공장동 D>

- 공장동 D는 산일제지 설립 초기 건축되었고 제사공장에서 주요공정인 누에로부터 실을 뽑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내부에 균일한 빛을 제공하기 위해 톱날형 지붕, 북향 고측창, 독특한 지붕트러스 구조를 형성
- 건축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대기 제사공장의 주요공정을 담당하였고 또한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교실로 활용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료실험실 B>

- 재료실험실 B는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축원형이 변형되었고 제사공장, 제지공장 등의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내포된 건축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미약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재전문위원(2019.3.18.)

- 초기 산업시설에 대한 정황을 잘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의 변천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 산업시설분야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번 등록 신청한 3동 이외에 범위를 확대하여 기타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사관의 경우 현 상태에서의 가치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조보강 및 원형 복원공사가 완료된 이후 등록에 대한 검토가 재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료실험동은 원형 훼손이 심하여 등록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공장동 D만 문화재 등록
 - 학사관은 복원공사 완료 후 등록 검토
- 출석 9명 / 조건부조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한림제지 공장 및 부속동 (구) 산일제사
2. 용 도 : (현) 제지공장(폐공장) (원) 제사공장
3.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남리 60-1외 8필지
4. 소유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5. 건축물 개요

<학사관>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42년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연면적 109.92m²
- 층수(높이) : 지상 2층

<공장동 D>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미상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1동 1층 59.10m², 2층 50.82m², 연면적 183.89m²
- 층수(높이) : 지상 1층

<재료실험동 B>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미상
- 수량 및 면적 : 건물 1동, 연면적 66.85m²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

< 000 문화재위원(2019.3.18.) >

1) 개요

① 학사관

- 목조 2층 건축으로, 준공 당시에는 1층을 기관실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짐. 1층엔 돌출현관이 있고 좌측에 내부에 2층으로 오르는 목조 스트레이트 계단이 있음. 2층에는 배면 쪽에 넓은 복도(폭, 약2.75m)가 있고 이 복도로 부터 정면 쪽으로 세 개의 방들이 나란히 연결 되어 있음. 각 방들은 널판 위 다다미, 복도는 쪽마루로 돼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붕은 우진각 지붕이며

재료는 시멘트 기와였음. 외벽은 비늘판벽 위에 망사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바른 후 회벽 또는 스티코 마감한 것으로 보임

② 공장동 D

- 약 7m 정도 폭, 23m 길이의 단일 건물이며 북측으로 천장을 설치한 톱날지붕의 전형적 공장건물임. 바닥은, 외벽에 남아 있는 통풍구와 장선을 위한 홈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래 마루 널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마감돼 있으며 복도 부분에는 쪽마루가 남아 있으며 천장은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음.
- 6.25 때 근처의 조치원 여고 교사가 소실되어 이 건물을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조치원여고 교사로 사용되기도 하였음.

③ 재료실험동 B

- 건립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실험실 군의 건물은 1976년 항공사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그 직전 사진은 1970년)
- 목구조 위 목조 트러스 지붕을 씌운 창고형 건물로 시기별 사진을 확인해 보면 원래 현재의 건물보다 길이 방향으로 더 길었던 것을 어느 시기에 절단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항은 건물 내부에서도 구조재가 아닌 목재들이 외벽의 버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뒤뜰에 굴뚝과 고가수조가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① 학사관, ② 공장동D, ③ 재료실험동B 모두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에 이어진 산업시설의 주요 건물로서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기술력, 재료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① 학사관

- 오랜 방치로 인해 건물 내외부 모두가 퇴락하고 누수로 인하여 전반적인 구조부 부패, 결구탈락 등, 위험한 상태였기에 조사일 현재 대부분의 내외부 마감재료들과 창호, 지붕개판까지 해체한 상태였음. 육안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대다수의 부위가 결구탈락, 재료부패, 열화, 파손, 외부벽체의 전반적 마감재 탈락 및 훼손, 이에 따른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임

② 공장동 D

-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시설로서 특징인 톱날지붕을 비롯하여 굴뚝 및 고가수조 등 근대기 공장건축의 요소들을 잘 간직하고 있음

③ 재료실험동 B

- 원래의 모습에서 절단되고 변형된 부분이 많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세종시에서 본 유구를 근대산업시설로서 가치를 찾고 원도심 재생의 중점사업으로 최선을 다하여 원형보존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와 여건 및 주변환경은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본 유구와 장소는 근대산업시설이 도심지에 자리 잡고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유입부터 제조, 생산, 반출, 부산물 또는 폐기물의 처리시설까지, 제사공장에서 제지공장으로 변환되면서 침식된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적용의 각 단계가 잘 남아 있는 “생산체계 유구”로서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근대건축물 유지 보존의 기본틀을 마련하다 보니 공장의 상징인 굴뚝, 고가수조, 지면 수조 등의 연관시설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최소한의 유구 보존은 세종시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완주 구삼례 양곡창고”(등록문화재 589호), 각종 양조장 건물 등, 이와 유사한 생산시설의 등록문화재들은 다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①학사관: 공장시설의 사무동, 기관실로 사용된 건물로 이 유구들의 중심시설이었으므로, 그 기능과 용도 그리고 원형 잔존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등록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나, 현재 전면적 해체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등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②공장동 D: 생산시설군의 가장 핵심인 공장건물로 원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기에 교육시설로 사용되었던 지역의 근대사, 제사공장에서 제지공장으로 전환하면서 건물구성에 변화가 생긴 흔적 등, 지금의 상태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③재료실험동 B: 건물의 부분 절단, 변형 등이 심하게 일어나 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이 유구 군은, 근대기 대표적 생산시설로서 그 작업과정과 순환의 완벽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유구(굴뚝, 고가수조, 지상수조, 기외 부속시설들)도 보존하여 문화재 등록하기를 권유하는 바임.

(명칭)

- 구 조치원 구 한림제지 공장동: (이 유구의 긴 변천사 중에서 한림제지로 사용된 기간이 가장 길었고 지역에서 한림제지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

< OOO 문화재위원(2019.3.18.) >

1) 개요

- 산일제사(山一製絲)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회사조합자료에 의하면, 1927년 6월 1일 충청남도 조치원읍 조치원리에서 창립된 것으로 확인
- 산일제사는 조치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잠농(蠶農), 제사산업, 직조산업이 발달하였던 충청남도 공주 지역과 가깝고 경부선 조치원역으로 인해 교통물류가 편리하였다는 지리적 장점을 배경으로 창립, 운영된 것으로 추정
- 산일제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치원의 대표적 공장으로 역할을 하였고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는 1950년부터 1956년까지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 사용되었고 1958년경부터는 삼중편물 공장으로 활용되었고 1969년경부터는 한림제지 공장으로 활용
- 2000년대 중반 한림제지가 폐업한 후 창고, 고물상 등으로 활용되며 방치되다 2015년 세종시에서 조치원 구 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사업을 추진
- 세종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조치원읍 구 도심에서 폐허화되고 방치되었던 구 산일제사 공장을 문화, 예술, 복지, 교육, 관광 등의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 중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현재 구 산일제지 공장에는 공장 6동, 재료실험실 3동, 학사관, 저수조 등 총 11동의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장동 D, 재료실험실 B, 학사관 등 3개 동을 등록문화재로 신청

<공장동 D>

- 공장동 D는 주 공장인 공장동 A동과 직각방향으로 연결되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치된 장방형 건물로 학사관 후면에 위치하며, 산일제지 설립 초기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
- 제사공장에서 주요한 공정이었던 누에에서 실을 뽑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톱날형 지붕과 북향 고측창을 형성하고 독특한 지붕트리스 구조를 형성
- 전체 평면 23.7m×7.3m 규모로 한쪽에 너비 1.85m의 편복도를 형성하고 상부에 톱날지붕을 형성하였으며, 톱날지붕을 이용하여 북향 고측창 2개를 설치하고 내부에 북쪽으로부터 균일한 빛을 제공
- 본래 용도였던 제사공장의 주요공정을 보여주는 핵심적 공간으로 보존이 필수적이며, 한국전쟁 이후 공장이 조치원여자고등학교로 활용될 당시 교실로 이용되었던 흔적도 남아 있는 상태

<학사관>

- 학사관은 공장 대지내 북동쪽 부분에 위치한 장방형 평면 2층 목조건물로 1층은 현관, 사무실, 온돌방 내실, 화장실로 구성되고 2층은 마루와 도쿄노마를 지닌 다다미방으로 구성
- 학사관은 본래 공장에서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관리동 용도의 건물이었으나, 조치원여자고등학교로 사용되면서 학사관이라는 현재의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

- 학사관은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본적 목조 구조체가 드러난 상태이며 해체 과정에서 '소화 17년(1942년) 12월 5일 상량'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상량문이 발견되어 정확한 건축연도를 확인

<재료실험실 B>

- 재료실험실 B는 공장 대지내 북서쪽 부분에서 재료실험실 C, A동과 함께 3동이 동서방향으로 길게 연결되어 위치하며, 산일제지 설립 초기에 건축되었고 현존하는 재료실험실 3개동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된 것으로 추정
- 재료실험실 B는 평면 9.1m×7.3m 규모로 내부는 기둥과 칸막이가 없는 통칸형 공간을 형성하고 상부에 왕대공 트러스 지붕틀과 박공지붕을 형성하였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의 보존, 유지상태는 나머지 2동에 비해 양호
- 2000년 항공사진과 그 이전의 항공사진들을 비교해 보면, 본래는 두 배 면적과 규모이었으나 당시 반쪽 부분이 철거되어 현재 상태는 반쪽 부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가능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공장동 D와 학사관은 기본적 건축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재료실험실 B는 본래 규모가 반으로 축소, 변형되었지만 노후화 및 훼손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상태
- 구 산일제지 대지내 11동의 건축물 중 등록문화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8동의 건축물도 대부분이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 보강이 시급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재생을 통해 구 산일제사 공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보존 보다는 활용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와 보존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질 위험성이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세종시는 2015년 조치원 구 도심 재생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대기 지역의 대표적 산업시설이었던 구 산일제지 공장을 매입하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재생사업 선정을 통해 공장 전체를 문화, 예술, 복지, 교육, 관광 등의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
- 세종시는 11동의 건축물 중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건축물은 원형복원을 통해 문화재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 건물은 보존보다는 활용 위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공장 원형뿐만 아니라 역사적, 지역적 가치의 많은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산업시설의 등록문화재 사례는 매우 적은 상태이고 근대기 공장 생산관련시설이 집합적으로 등록된 사례는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등록문화재 제707호)이 유일
- 구 산일제사 공장도 근대기 중요한 산업이었던 제사공장으로 생산관련시설이 집합적으로 남아 있는 흔치않은 근대산업유산으로서 유사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7) 등록가치의견

<공장동 D>

- 공장동 D는 산일제지 설립 초기 건축되었고 제사공장에서 주요공정인 누에로부터 실을 뽑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내부에 균일한 빛을 제공하기 위해 톱날형 지붕, 북향 고측창, 독특한 지붕트러스 구조를 형성
- 공장동 D는 이상과 같은 건축적 특성뿐만 아니라 근대기 제사공장의 주요공정을 담당하였고 또한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교실로 활용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물이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학사관>

- 학사관은 1942년 건축된 2층 일식목조 건물로 본래 공장에서 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관리동 용도로 추정되며, 1층은 사무실 업무공간, 2층은 일본식 주거공간으로 각각 구성
- 학사관은 본래 근대산업유산으로 업무와 주거의 공간이 복합된 공장시설이고 한국전쟁 당시와 직후 조치원여자고등학교 임시교사로도 활용되었다는 건축적, 역사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건물이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학사관은 현재 활용 중심의 보수공사가 시작되어 해체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등록하기 보다는 문화재청과 협조하여 원형복원 중심으로 설계, 공사내용을 변경하고 원형복원 공사완료 후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임

<재료실험실 B>

- 재료실험실 B는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축원형이 변형되었고 제사공장, 제지공장 등의 근대기 산업시설로서 내포된 건축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미약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 금회 등록 신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구 산일제사 공장에서 가장 대규모 건물이었고 생산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공장동 A도 구 산일제사 공장이 근대기 산업유산으로서 완전성과 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변의 고가수조, 굴뚝 등과 함께 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수적이므로 등록을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공장동 A를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공간으로 건물 대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대표적 결과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등록문화재 등록에 부정적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000 문화재전문위원(2019.3.18.) >

1) 개요

- 현존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은 최초 일제강점기 잠사생산을 위한 제사공장 (1927년~, 추정)으로 설립, 해방 후 순차적으로 ‘조치원여고’ 임시 교사(1950년~1956년,추정)와 ‘삼중편물 공장(1958~,추정)’, ‘한림제지 공장(1969년,추정)’으로 사용되어 오다 2000년대 중반 폐업됨.

- 세종시에서는 2015년부터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그후 부지 매입과 함께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부지를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현재 부지 정비 및 관련 계획(활용)을 수립 중에 있음.
- 현재 공장부지 내에는 모두 11동의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 번 등록 신청된 건물은 최초 제사공장으로 건립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건물 3동(학사관, 공장동, 재료실험동)임.
- 동 3동의 건물 중 학사관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지 못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최근 임시보강 과정에서 일부 외부 마감재 등이 철거되어 목구조체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조보강 및 원형 복원 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임.
- 세종시에서는 등록 신청한 건물 이외, 기타 건축 및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① 학사관

- 공장부지 내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물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학사관’이라는 명칭은 한국전쟁 이후 조치원여고로 사용될 당시 붙여진 것으로 보이며, 지붕 트러스가구(왕대공)에서 발견된 상량기록에 의하면 1934년(昭和十七年)에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고증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최초 ‘산일제사 공장’으로 신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상량기록에는 공장 명칭이 ‘고곡제사공장(高谷製絲工場)’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방형 평면의 건물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쪽면 1층 중앙부에 포치 형식의 출입구를 두고 있고, 1층 남동쪽 구석에는 별도의 실을 마련하였으며 바닥에는 온돌의 고래로 보이는 시설이 깔려 있음(굴뚝은 확인되지 않음).
- 실 근처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무계단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2층은 남쪽편으로 복도를 두고 북쪽에 면하여서는 3개의 실을 배치하였음. 2층 바닥에는 모두 장마루를 깔았으나 각 실의 내부 바닥에는 마루 위에 다다미를 설치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쪽 끝에 위치한 다다미에는 도쿄노마 흔적이 남아 있음.
- 벽체는 심벽 형태로 구성하고 그 위에 철망과 방수포를 설치한 다음 시멘트 몰탈 미장 후 페인트칠로 마감하였으며, 창호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목재 오르내리창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않음.
- 특이한 것은, 전후 기둥열 중 일부 기둥은 고주를 사용하여 1층 기둥이 2층 지붕가구의 보를 직접 받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층 바닥 아래의 층고가 기둥 몸체에 바로 결구되어 있음. 또한, 2층 벽체를 가로지르는 인방재가 일종의 누끼(貫)로서 기둥의 몸통을 관통하여 결구되는 등 일식 목가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지붕가구는 왕대공 트러스 볼트 조임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위에 개판과 방수포를 설치하고 보토 없이 바로 시멘트 평기와를 깔았음.
- 현재, 보강 및 원형 복원공사 진행을 위해 목가구(木架構)를 제외한 지붕, 벽체 등의 마감재 철거가 진행되어, 현 상태에서 건축양식 및 디테일 등의 특징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현재의 건물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건축적 가치평가 이전에 구조보강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공장동 D

- 제사공장 당시 누에에서 실을 뽑는 작업장으로 사용된 공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건물로 북쪽 단부가 학사관과 마주보게 배치하고 있음.
- 과거 사진자료를 통해서 보면, 공장동 건물과 학사관 사이에 별동의 연결 건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 남아 있는 초석과 고막이벽 등의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 바닥에 마루를 깔은 연결용 복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건물 내부는 크게 복도와 작업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구획하였으며 서측편으로 장방형 평면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길게 복도를 내었고 그 반대편에는 통칸으로 넓은 작업공간을 마련하였음.
- 지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남쪽에 위치한 2개소는 소위, 툇니형 고층창이 있는 지붕형태이며 나머지 1개소는 맞배지붕으로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또한, 복도 지붕의 경우에도 소위, 눈썹지붕 형식으로 덧 달아내는 등 외관상 건축적 완결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건립 당시부터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증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벽체는 제사벽으로 하고 그 위에 회칠을 하여 마감하였으며,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로 구성하였음. 복도 바닥은 장마루 깔았고 작업공간 내부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나 벽체 하부에 환기구멍 흔적이 있어 당초 마루바닥에서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공장동 건물 남측면으로는 또 다른 공장 건물과 연결되어 실내에서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고증 자료에 의하면 후대에 증축된 것으로 보임.

③ 재료실험동 B

- 공장부지 내 북서쪽에 위치하여 학사관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 사진자료에 의하면 남측편으로 유사한 규모의 또 다른 실험실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철거된 상태임.
- 건립 당시 재료 실험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시설물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는 없음. 현재는 지역 예술인들이 작업 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정방형의 평면에 목조 트러스 볼트 조임으로 지붕가구를 구성하였으며 지붕형태는 박공지붕으로 하였음. 주출입구는 북측면에 있으며 동측면에는 상부에 캐노피를 달아낸 부출입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의 개구부 위치 및 형태 등에 대해서는 원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산일제사 공장'으로 건립된 이후 편물, 제지공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변화는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증축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과거 사진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음.
- 재료실험동의 경우 일부 공간이 철거되어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으며, 학사관은 구조보강을 위해 외관 마감재의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이므로 이 역시 원형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공장시설이 폐업된 이후, 최근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노후화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특히 학사관의 경우는 구조보강이 시급한 상태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멸실 위기에 처했던 것을 소유자인 세종시가 지역의 역사적 산물로서 인식하여 매입하는 등 보존관리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원형복원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예술인 및 지역주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세종시에서 공장부지 일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산업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와 더불어 문화예술 공간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폐산업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전국에 걸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인 개별건축(시설)물로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구 산일제사 공장'이 갖는 보존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초기 산업시설에 대한 정황을 잘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의 변천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 산업시설분야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번 등록 신청한 3동 이외에 범위를 확대하여 기타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해서도 등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사관의 경우 현 상태에서의 가치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조보강 및 원형복원공사가 완료된 이후 등록에 대한 검토가 재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재료실험등은 원형 훼손이 심하여 등록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의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 6~10월)과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2.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 년대	소유자	소재지	비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1축	23.0×311.5 cm	종이	1945.11.4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 추진경과

-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목록화 연구’용역(‘18.6~10월)
 - A등급 34건(‘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등 포함), B등급 104건, C등급 1,215건
- 임시정부 목록화 유물 등록검토 대상 선정 자문회의(‘19. 1. 2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19. 2. 11.)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000 문화재전문위원 (2019.2.11.)

- 이시영, 조성환, 김구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의 요인들이 광복을 맞아 자신들의 감회와 포부 등을 필적으로 남긴 중요한 자료임. 또한 광복 이후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각자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광복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사상성을 엿볼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성격과 작성의 동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임시정부'라는 용어가 반영된 명칭 검토가 필요함.

○ 000 서강대학교 교수 (2019.2.11.)

- 이 필첩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요인 23인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귀국을 앞두고 요인들의 감회와 새로운 포부 등을 휘호한 것을 편책한 것으로 역사적 기념물인 동시에 역사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명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 충칭에서 귀국에 앞서 휘호한 필첩이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함.

○ 000 문화재 위원 (2019.2.11.)

- 이시영,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의 요인들이 광복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자신들의 감회와 포부, 이념 등을 필사한 것을 국내에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꾸민 것으로, 그들의 글씨와 품고 있었던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명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함.

○ 000 단국대학교 교수 (2019.2.11.)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23명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귀국하기 전날 각자 환국에 대한 소감과 향후 희망을 밝힌 글을 적은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영인첩에는 '유(渝)'자가 '유(諭)'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으로 함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재유기념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3. 소유자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4. 조사자 의견

<OOO 문화재전문위원(2019.2.11.)>

1)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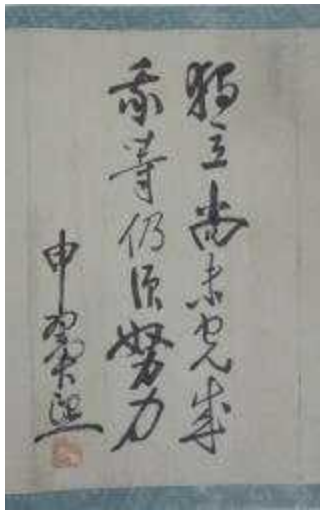
- 조금씩 다른 크기의 종이 위에 남겨진 필적을 일정하게 연접하고 배접처리하여 권축으로 장정한 상태임. 유물의 명칭에서 첩본(帖本)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두루마리 형태로 원상이 상당 부분 변형되었음을 추정케 함. 현재 보존상태는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었던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을 역임하였던 청사(晴叢) 조성환(曹成煥, 1875~1948),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白凡) 김구(金九, 1876~1949) 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의 요인들이 광복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 저녁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자신들의 감회, 포부, 이념 등을 필적으로 남긴 유물임. 유물의 명칭인 ‘재유(在渝)’의 ‘유(渝)’는 중국 수 왕조(隋王朝)에서 중경 지역에 ‘유주(渝州)’를 설치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처였던 곳이기 사용함. 한편, ‘첩(帖)’이라 하여 본래 유물은 절첩(折帖) 형식의 장정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두루마리 형식으로 꾸며져 원상이 상당 부분 변형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은 두루마리에 23인의 임시정부 요인들의 필적을 담고 있음. 수록된 순서를 보면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청사(晴叢) 조성환(曹成煥, 1875~1948), 백범(白凡) 김구(金九, 1876~1949), 만호(晩湖) 홍진(洪震, 1877~1946), 몽호(夢乎) 황학수(黃學秀, 1879~1953), 춘교(春郊) 유동열(柳東說, 1879~?),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 1894~1961), 우천(藕泉) 조완구(趙琬九, 1881~1955), 소해(宵海) 장건상(張建相, 1882~1974), 남파(南坡)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소양(素昂) 조용은(趙鏞殷, 1887~1958), 지제(志弟) 최우강(崔友江, 1889~?), 당헌(棠軒) 김봉준(金朋濬, 1888~1950), 성주식(成周寔, 1891~1959),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1894~1956), 의산(義山) 최동오(崔東旼, 1892~1950), 단주(旦洲) 유림(柳林, 1894~1961), 영주(令洲) 김상덕(金尙德, 1891~1956), 약산(若山) 김원봉(金元鳳, 1898~1958), 일파(一波)

엄항섭(嚴恒燮, 1898~1962),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1898~1969), 백강(白岡) 조경한(趙擎韓, 1900~1993), 완운(蜿雲) 윤기섭(尹琦燮, 1887~1959) 등임.

- 조사 대상 『재유기념첩』의 필적을 담은 원본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311.5cm이며, 장황된 족자의 전체 크기는 세로는 25.5cm, 가로의 전체 길이는 388.7cm임. 또한 각각의 필적은 본래 각각 크기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큰 것은 29.2cm(김성숙), 25.5cm(윤기섭) 내외, 작은 것은 11.0cm(이시영) 내외의 크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박찬익의 경우에는 전체의 크기는 13.5cm 정도 이나 9.0cm와 4.5cm로 잘라진 상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배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첩본의 형태에서 권축의 형태로 변형되면서 일어난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원본에서 상당히 많이 변형되었던 현상을 보여줌.



신익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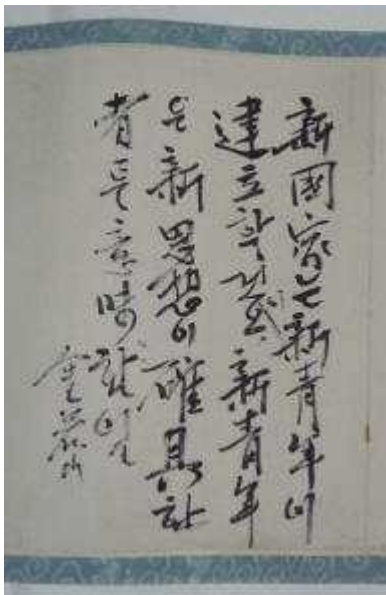


박찬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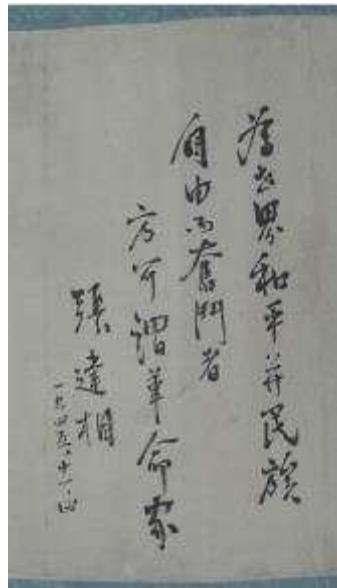
- 한편, 조사 대상 『재유기념첩』에는 일부에 해당하나 필적과 함께 명인(名印) 또는 호인(號印) 그리고 수결(手決)도 확인되어 자료적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 이시영, 조성환, 김구, 홍진, 황학수, 박찬익, 조소앙, 신익희, 최동오, 유립, 김상덕 등 11명의 글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김규식, 김봉준, 엄항섭은 수결(手決)이 있음.
- 조사 대상 『재유기념첩』에 수록된 임시정부 요인들의 글에는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쳐였던 중경을 떠나며 그동안의 감회와 앞으로의 뜻을 담은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인물	내용
李始榮	惟誠動天 至誠感神 오직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지극한 정성이 신을 감동시킨다
曹成煥	大智似愚 大勇似怯 큰 지혜는 마치 어리석은 듯 하고, 큰 용기는 마치 겁내는 듯 하다
金九	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변화를 감당한다
洪震	與子同歸 그대와 함께 돌아가리
黃學秀	正義人道 春秋筆法
柳東說	精誠尙在心 萬化不關愁 정성은 늘 마음에 있고, 수많은 변화는 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金奎植	萬里鵬程 一奏偉功 만리 양양한 앞 길 한뜻으로 이룬 큰 업적
趙琬九	勞謙君子有終吉 虛能受湯則溢 수고하고 겸손한 군자는 끝내 길함이 있고, 빈 것은 끓는 것을 받아들이나 넘친다.
張建相	爲世界和平并民族自由而奮者方可謂革命家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자라야 혁명가라 할 수 있다
朴贊翊	戰後世相如亂絲 正當韓族覺醒時 滯留西蜀非長計 羨子歸鄉有定期 전후세상은 흐트러진 실과 같아 바로 한민족이 각성할 때이다. 서촉에 체류하는 것은 장구한 계획이 아니니 그대와 함께 귀향할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
趙鏞殷(素昂)	均天下之智富權 세상의 지식, 부, 권리를 균등하게 하라
崔友江	恒久爲成功之本 오래도록 변하지 않음이 성공이 근본이다
金朋濬	信義勇敢 務實力行
成周寔	衆志成城 여러 사람의 뜻이 성을 이룬다.
申翼熙	獨立尙未完成 我等仍順努力 독립은 아직 미완성이니 우리들은 여전히 노력해야한다
崔東旣	同歸一體
柳林	群策群力 自立自強
金尙德	爲建設新的朝鮮而共同奮鬥 새로운 조선의 건설을 위해 함께 분투하자
金元鳳	新國家는 新靑年이 建立할 것이요, 新靑年은 新思想이 確具한 자를 意味함이라
嚴恒燮	自力更生
金星淑	爲建設自由幸福之新國家而奮鬥 자유 행복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자
趙擎韓	爲國家爲民族而爭榮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영예를 다투자
尹琦燮	낡은 집 무너지매 새집 지으려고 온갖 썸 달이어 놓고 옛 터 두루 살피어보니 터는 좋다마는 가시 덩굴 적지 않소라. 날랜 연장 잡았으니 그 무엇 걱정하라

- 이시영 선생의 “오직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지극한 정성이 신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독립운동을 향한 어렵고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김구 선생의 “변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은 광복 이후의 조국에서의 앞날이 수많은 변화에 직면하겠으나, 지금까지 광복을 위해 노력했던 변하지 않는 한마음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임.
- 한편, 장건상 선생의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자라야 혁명가라 할 수 있다”는 말과 김원봉 선생의 “新國家는 新靑年이 建立할 것이요, 新靑年은 新思想이 確具한 자를 意味함이라”는 말은 일제와의 투쟁 노선을 분명히 하며 상해를 중심으로 만주는 물론 국내에까지 조선 총독 및 총독부의 고관, 군부 수뇌와 매국적 친일파들에게 의열단(義烈團)으로서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지속하였던 그들의 사상을 짐작케 해줌. 또한, “세상의 지식, 부, 권리를 균등하게 하라”는 조소앙 선생의 글은 1930년대에 주창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하는 삼균주의(三均主義)의 이념을 떠올리게 해줌.



김약산(김원봉)



장건상



조소앙

- 이같이 이 기념 필적에 수록된 글들은 광복 이후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각자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시정부 요인의 친필’이라는 가치와 함께 일제강점기 이후 광복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시대의 사상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판단됨.

3) 기타(참고자료)

- “독립 열망, 붓으로 남기다: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1>임정 요인들의 다짐 ‘재유기념첩’ 서울신문 2018-12-31
- 송대시보(<http://www.ssunews.net>)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조사 대상 『재유기념첩』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쳐였던 중경을 떠나며 그동안의 감회를 적은 필적이 들어있는 중요한 자료임.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필적과 그들의 글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상은 한국 역사의 특수성과 사회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지정 명칭으로 현재 불리고 있는 『재유기념첩』은 유물의 제작 동기 및 원래의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임시정부 요인들의 성격과 필적 작성의 동기가 드러날 수 있는 지정 명칭 곧 ‘임시정부’라는 용어가 반영된 명칭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OOO 서강대학교 교수(2019.2.11.)>

1) 현상

- 휘호의 필적은 잘 보존된 상태이나, 표구 제책이 잘 되지 못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이라 표제된 이 필첩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요인 23인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귀국을 앞두고 기념한 휘호를 편찬한 것임.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 5일 충칭에서 상하이(上海)로 떠나,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그룹으로 귀국함. 귀국에 앞서 요인들은 감회와 새로운 포부 등을 휘호한 것을 귀국 후 두루마리 형식으로 표구하였음.
- 필첩에 표구된 순서는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조성환(曹成煥, 1875~1948), 김구(金九, 1876~1949), 만호(晩湖=洪震, 1877~1946), 황학수(黃學秀, 1879~1953), 유동열(柳東說, 1879~?), 김규식(金奎植, 1881~1950), 조완구(趙琬九, 1881~1955), 장건상(張建相, 1882~1974),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조소양(趙素昂, 1887~1958), 최우강(崔友江=崔錫淳, 1889~?), 김봉준(金朋濬, 1888~1950), 성주식(成周寔, 1891~1959), 신익희(申翼熙, 1894~1956), 최동오(崔東旣, 1892~1950), 유림(柳林, 1898~1961), 김상덕(金尙德, 1891~1956), 김약산(金若山=金元鳳, 1898~1958), 엄항섭(嚴恒燮, 1898~1962), 김성숙(金星淑, 1898~1969), 조경한(趙擎韓, 1900~1993), 윤기섭(尹琦燮, 1887~1959) 등임.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연령순으로 편제한 것으로 보임.
- 이 필첩은 충칭 연화지 임시정부청사에서 사진을 찍은 뒤, 태극기에 환국기념 서명(독립기념관 소장)을 하고 국무위원 한 분의 요청으로 휘호한 것으로 짐작됨. 이후 고 김양선 목사가 구입하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소장하였으나, 구입의 경위나 과정, 필첩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자료가 없음. 따라서 누가 소장하였던 것인지,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이라는 제명이 언제 붙여진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제명 중 ‘유(渝)’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40년 부터 해방될 때까지 자리하고 있던 충칭을 지칭하는 지명임.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서 이 휘호집을 『재유기념첩』이라는 제명으로 영인하여 보급하여 현재 대상 문화재가

그러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영인첩에는 ‘유’가 ‘渝’가 아닌 ‘諭’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 충칭에서 귀국에 앞서 휘호한 필첩이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함.

3)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재유기념첩』은 해방 직후 귀국을 앞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급 요인 23인의 감회와 다짐, 소망 등을 드러낸 휘호들을 모은 필첩임. 같은 시기 작성된 환국기념 태극기 서명포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기념물인 동시에 역사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큼.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OOO 문화재 위원(2019.2.11.)>

1) 현상

- 필적은 대체로 온전하나 미숙한 장인의 장책으로 인해 원형을 잃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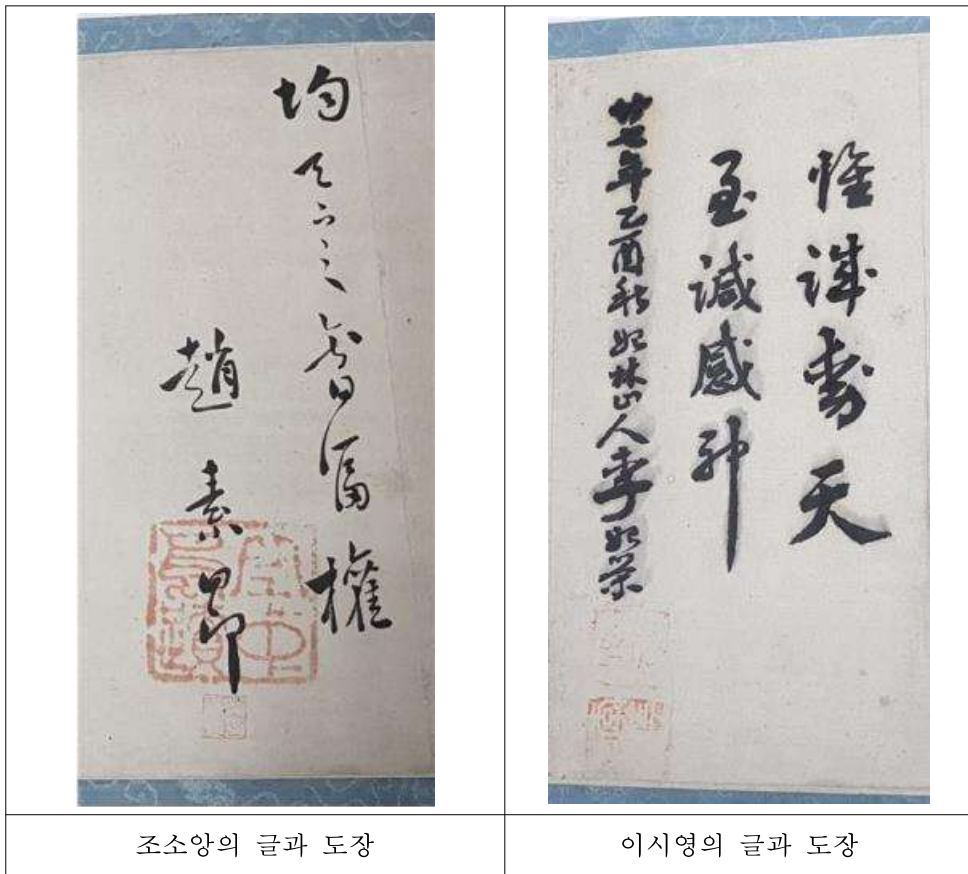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은 이시영,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인의 요인들이 광복이후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 저녁에 중국 충칭(重慶)에서 자신들의 감회, 포부, 이념 등을 필사한 것을 국내에서 두루마리 형식으로 꾸민 것임. “재유(在渝)”의 유(渝)는 충칭의 옛 지명의 하나로 현재 쓰촨성(四川省)에 속해 있으며, 임시정부의 마지막 거처였음.
- 두루마리의 차례로 본 23인은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조성환(曹成煥, 1875~1948), 김구(金九, 1876~1949), 만호(晩湖=洪震, 1877~1946), 황학수(黃學秀, 1879~1953), 유동열(柳東說, 1879~?), 김규식(金奎植, 1894~1961), 조완구(趙琬九, 1881~1955), 장건상(張建相, 1882~1974),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조소양(趙素昂, 1887~1958), 최우강(崔友江, 1889~?), 김봉준(金朋濬, 1888~1950), 성주식(成周寔, 1891~1959), 신익희(申翼熙, 1894~1956), 최동오(崔東旵, 1892~1950), 유림(柳林, 1894~1961), 김상덕(金尙德, 1891~1956), 김약산(金若山=金元鳳, 1898~1958), 엄항섭(嚴恒燮, 1898~1962), 김성숙(金星淑, 1898~1969), 조경한(趙擎韓, 1900~1993), 윤기섭(尹琦燮, 1887~1959) 등임.



<사진1> 『재유기념첩(在渝紀念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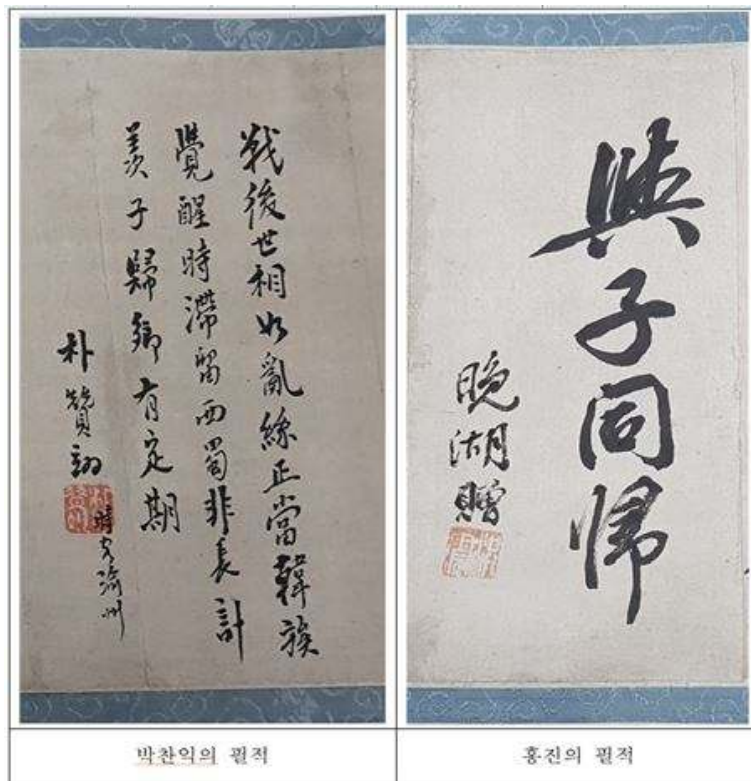
- 이중에서 이시영, 조성환, 김구, 홍진, 황학수, 박찬익, 조소앙, 신익희, 최동오, 유림, 김상덕 등 11명의 글에는 도장이 찍혀 있음. 특히 조소앙은 이름과 함께 「空中鳥跡」 등 2과가 찍혀 있고, 이시영의 방형 도장은 윗부분이 좌측방향으로 잘못 찍혀져 있음. 그리고 김규식, 김봉준, 엄항섭은 수결(手決)이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도장이나 수결이 없음.
- 처음 소개된 글은 이시영의 “惟誠動天 至誠感神”임. “오직 정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지성이 신을 감동시킨다.”는 의미임. 김구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로 “不變應萬變”이라고 써 놓았음. 삼균주의를 주장한 조소앙은 “세상의 지혜, 부, 권리를 균등하게 하라”는 의미로 “均天下之智富權”, 신익희는 “독립은 아직 미완성이니 우리들은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獨立尙未完成我等仍順努力”, 장건상은 “세계평화와 민족자유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라야 혁명가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爲世界和平并民族自由而奮者方可謂革命家”를 써 놓았음.



<사진2> 조소앙과 이시영의 글과 도장

- 한편 윤기섭은 “낡은 집 무너지매 새집 지으려고 온갖 썸 당이어 놓고 옛 터 두루 살피어 보니 터는 좋다마는 가시 덩굴 적지 않소라. 날랜 연장 잡았으니 그 무엇 걱정하라.”와 같이 순 한글로 적어 놓았음. 당시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한글로 쓴 사실로 보아 그의 우리말 사랑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음. 더욱이 같은 시기에 쓰여진 독립기념관 소장의 환국기념 서명포에도 윤기섭은 “자진담 울니 붉은 해 쭉 솟는고나.”와 같이 한글로 써 놓았음. 이렇게 이 두루마리에 수록된 임정요인들의 글은 새롭게 출발하는 조국 건설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담고 있음.

- 한편 23인의 글은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환국 하루 전인 1945년 11월 4일에 쓴 것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누가 이 글을 받아 모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음. 그러나 홍진과 박찬익의 글에서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음. 곧 홍진은 “그대와 함께 귀국함. 만호(홍진) 드림”이라는 의미로 “與子同歸 晚湖贈”이라고 써 놓았음. 그렇다면 홍진은 이 글을 써서 (글을 요청한) 그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첨부된 글들은 임시정부의 요인 중의 한 사람이 환국을 기념하고자 주요 요인들에게 요청하여 모은 것임을 알 수 있음. 또한 박찬익도 시구형식의 글에서 “그대(당신)가 귀향함도 정한 기약이 있네(羨子歸鄉有定期)”라고 하여 “그대(당신)”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글을 써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음. 이렇게 23인의 글은 글을 요청한 임시정부 요인 중의 한 사람이 환국하면서 국내로 가져왔으나 이후 유출되어, 이와 같은 두루마리로 꾸며져 전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이 글의 원래 주인은 홍진과 박찬익이 글씨를 써서 준 “그대”가 됨.



<사진3> 박찬익과 홍진의 필적

- 한편 『재유기념첩』은 현재 세로로 잘라 배접하여 두루마리(축) 형식으로 장정되어 있음. 23인의 글들을 장인이 자의적으로 자른 탓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배접 당시 풀이 외면에 묻은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함. 상하는 구름문양의 연한 푸른색의 비단을 붙여 놓았으나 전반적으로 숙련되지 못한 장인이 장정한 것으로 보임.
- 이 두루마리의 명칭에 대해 소장기관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서 『재유기념첩』으로 소개하고 영인하여 보급한 탓에 『재유기념첩』으로 알려져 있음.

이번 목록화 조사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재유기념첩』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23인 필첩”으로 소개해 놓았음. 그러나 충칭의 옛 지명을 뜻하는 “유(渝)”가 포함된 “재유(在渝)”라는 용어는 수록된 글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다만 23인의 글 중에서 박찬익이 “渝州”, 김봉준은 “重京”이라고 써 놓았을 뿐임. 유사한 다른 기록물을 보면,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旅渝”, “留渝”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용어들 역시 “재유”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하지 않음. 그런 점에서 이 명칭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래 글들이 한 장에 계속 이어서 쓰여 진 것인지 아니면 한 장씩 쓴 것인지는 현재 알기가 어려움. 아무튼 현재의 장정형식은 첩이 아닌 축(두루마리)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첩”이라고 하기 보다는 “축”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마침 이와 유사한 유물 중에서 독립기념관 소장의 서명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서명포』로 일컬어짐. 이러한 관제(冠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필적 모음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서축(書軸)』,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필묵』,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함.

3) 기타(참고자료)

- “독립 열망, 붓으로 남기다: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1>임정 요인들의 다짐 ‘재유기념첩’ 서울신문 2018-12-31
- 송대시보(<http://www.ssunews.net>)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이 서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을 맞이한 소감을 밝히고, 또 향후 조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아울러 그들의 글씨와 근본적으로 품고 있었던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인 만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OOO 단국대학교 교수 (2019.2.11.)>

1) 현상

- 휘호의 필적은 잘 보존되어 있으나, 표구하여 제책하면서 약간 변형된 것도 있음.

2) 내용 및 특징 :

- <재유기념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23명이 중국 충칭(重慶)에서 귀국하기 전날인 1945년 11월 4일 각자 환국에 대한 소감과 향후 희망을 밝힌 글을 적은 것임. 국무위원 23명이 각자 낱장으로 휘호를 썼고, 이를 한데 묶어 두루마리 형태로 표구해 놓았음.

- 표구된 순서는 이시영(李始榮), 조성환(曹成煥), 김구(金九), 홍震(晩湖), 황학수(黃學秀), 유동열(柳東說), 김규식(金奎植), 조완구(趙琬九), 장건상(張建相), 박찬익(朴贊翊), 조소양(趙素昂), 최석순(崔錫淳), 김봉준(金朋濬), 성주식(成周寔), 신익희(申翼熙), 최동오(崔東昨), 유림(柳林), 김상덕(金尙德), 김원봉(金元鳳, 金若山), 엄항섭(嚴恒燮), 김성숙(金星淑), 조경한(趙擎韓), 윤기섭(尹琦燮) 등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환국을 기념하여 임시정부 청사에서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환국에 대한 감회와 새로운 포부를 담은 글을 휘호로 작성하여 남겼음. 이들 휘호는 고 김양선 목사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구입경위나 <재유기념첩>이라는 제명이 붙여진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음. 제명의 ‘유(渝)’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충칭을 가리키는 지명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재유기념첩>이라는 제명으로 영인하여 그러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인첩에는 ‘유(渝)’자가 ‘유(諭)’자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3)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은 해방 후 국내로 환국할 당시 중국에서 환국기념 태극기 서명포를 비롯하여 여러 형태의 역사적 기념물이 남겼음. <재유기념첩>은 이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고, 이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보 고 사 항

12.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현상변경(무대행사)

가. 보고사항

사적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일자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사적324)	서울 서대문	케이비에스 미디어(주)	<p>가. 허가받는자: 케이비에스미디어(주)</p> <p>나. 허가내용 : 무대행사용 가설물 설치 등 <설치위치>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문화재구역내) <설치개요> ○ 메인무대 : 1개소 - 구조 : 목재프레임위합판마감, 규모 : 1개소(430㎡) ○ LED 전광판구조물 : 3개소 - 구조 : 철재프레임, - 규모 : 2개소(8.0m×5.0m×8.0m), 1개소(7.0m×5.0m×8.0m) ○ 스피커구조물 : 2개소 - 구조 : 철재프레임, - 규모 : 2개소(4.0m×4.0m×14.0m) * *스피커 사용출력 : 20KW (최대출력 26.4KW) ○ 캐노피텐트 : 20동 - 구조 : 몽골텐트형식, - 규모 : 20동(5.0m×5.0m)</p> <p>다. 허가조건 ○ 행사 내용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 고증 자료를 확보 후 사실에 근거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 행사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사적지 바닥에 양카를 박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함 -철제 프레임 구조물(LED, 스</p>	조건부 허가	'19.03.22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일자
			<p>피커)은 전도예방을 위한 버팀재(와이어 등)를 설치하되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와이어 선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표지 등을 함께 설치 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해를 줘서는 아니되며, 이의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충분히 배치 운용하도록 함 ○행사준비, 진행, 완료단계까지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함 ○서대문구청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항의 불이행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사 중이라도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내용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불허처리가 될 수 있음 <p>라. 허가기간 2019.3.27. ~ 2019.4.3.</p> <p>마. 전문가 조사의견(2019.3.20) <문화재위원 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공공적 행사로 단기간 동안 개최되고 행사용 시설물들이 기존 시설물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가설공법으로 설치되므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행사를 위해 다수의 구조물, 장비 등이 설치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므로 설치, 이동 해체 과정에서 문화재에 미칠수 있는 영향과 훼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

13. 현상변경 신청사항 처리 보고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현상변경(경찰홍보 조형물 설치)

가. 보고사항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내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구 서울역사」 (사적284)	서울 중구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	(1) 허가 받는자 : 남대문경찰서장 (2) 허가내용 ○ 대상위치: 서울 중구 통일로 15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1구역 내) ○ 세부내용 - 서울역파출소 정문 마당 내에 경찰홍보 조형물설치 (포돌이 1개, 포순이 1개) - 설치규격(개당): 1×1.2×1.5m, 강화플라스틱 소재 (3) 허가기간 ○ 2019. 3. 25. ~ 2019. 4. 30. (4) 전문가 조사의견 <문화재위원 안창모('19.3.15.)> ○ 조형물은 서울역 파출소 출입구 또는 게시판 앞으로 예상되며, 두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허가	'19.3.22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